



#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이정균·김준영·임소정·안국산·미무라 미쓰히로



#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이정균 · 김준영 · 임소정 · 안국산 · 미무라 미쓰히로

연구자료 16-12

##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인 쇄 2016년 12월 26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14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북마을 T. 042-632-3134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2428-2

978-89-322-2064-2(세트)



## 국문요약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안보리(UNSC)의 대북제재로 북·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전초기 지역할을 하는 랴오닝성, 지린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중 무역의 종합적인 거래관행 연구와 대북제재로 인한 변화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NSC 대북제재(2006~16년(2270호))와 한·미·일의 양자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거래 관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6년 일본의 대북무역 금지조치로 인한 북·일 무역 단절과 2010년 한국의 5·24 조치 시행으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듯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광물자원의 수요 급증과 중국 기업의 대북 무역 및 투자 증대가 그 자리를 대체하였고 북한 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더욱 증대되어 갔다. 그간 UNSC의 대북제재와 한·미·일의 독자적인 양자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북·중 무역거래 증대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북·중 간 전체 무역과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구조, 특징을 동시에 고려해볼 경우, 기존의 대북제재가 북·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대북제재로 북·중 간 거래관행의 지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중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① 북·중 간 무역 규모의 급속한 증대 ②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대 ③ 중국의 대북 수입 증대 ④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상품구조의 변화 ⑤ 중국 대북무역의 동북3성 위주에서 산둥성, 장쑤성, 쓰촨성, 허베이성 등 남방연해안 지역으로의 확대

등 특징을 나타내며 변화하였고 현재까지 이러한 특징들은 지속되고 있다.

랴오닝성의 북·중 무역은 육상으로 중국과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국가 간 주요 무역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무역이 어려워지고, 특히 대금결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2013년부터는 단동에 소재한 중국 기업과 북한 기업 간 신뢰관계에 따른 특수 결제방식(신용제공 결제)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중 무역에서 단동 지역의 중요성은 공식무역, 비공식무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린성의 대북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 질과 양에서 모두 큰 발전을 이루어 왔다. 대북제재 시행 이후 지린성의 북·중 무역 주요 품목들은 제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변경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현상 유지 내지는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해관의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북·중 무역의 주요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무역·변경무역·가공무역·보세무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중 전체 무역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북·중 접경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가 없으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연히 작음을 볼 수 있었다. 변경무역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접하는 곳에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북·중 무역에서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만 가능하다. 이들 접경지역은 북·중 무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북·중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초 유엔 대북제재 이후로 중국 기업들의 대북 위탁가공 주문 또는 출경가공 주문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의류가공 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평양 지역의 의류가공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외화 획득 통로가 좁아짐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닌 의류 부문의 비교우위를 이용해 임가공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에서의 보세무역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대중 수출에서 보세무역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그 비중은 30~40%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공무역의 경우와 같이 접경지역의 보세무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보세무역 수출 비중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보세무역이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보세무역 수출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미루어봤을 때 5·24 조치 이후 중국을 통해 한국·일본 등 제3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북·중 무역을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분류하여 주요 교역 품목들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북한이 중국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수출하는 양은 비슷한 수준이며 비접경지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은 광물류가 차지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수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품목군은 의류와 광물인데 의류 품목이 광물 품목의 수출을 상회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류 품목의 세부 구성은 99% 이상이 완제품으로 이뤄져 있다. 북한의 대중수입의 경우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이 비접경지역에서의 수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수입은 수출보다 품목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이 소비하는 다양한 소비재나 중간재들을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공식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밀무역도 자연스럽게 증대되고 있다. 북·중 밀무역은 지역적으로 랴오닝성 압록강 하구와 공해,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비교적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접경지역을 따라 광범위하게 소규모의 민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차이에도 밀무역의 주요 배경으로는 ① 지역 경제의 낙후성 ② 장기간의 관행 ③ 사회문화적 유대 요인 ④ 교역품목의 금수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고 관행화되어 있어 설령 단속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밀무역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접경지역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동북 지역과 관련된 정책들은 주변국과의 통상구 인프라를 개선하여 중국 측 접경지역과 주변국의 상호연계성(互聯互通, connectivity)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새로운 분야, 즉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품무역인 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제재 여부에 상관없이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주요 교역중심지인 단둥과 북한, 러시아로의 진출이 용이한 옌벤주 등 접경지역을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지금도 북·중 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가 시행 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북·중 간 무역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고 북한 내부 경제는 장마당 활성화, 물가 안정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 상황에도 북한은 2016년 9월 초 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UNSC는 11월 말 2321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보다 구체적

이고 확대·강화된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제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북제재가 향후 북·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북·중 무역 거래관행 분석에서 벗어나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중심으로한 거래관행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북제재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의 거래관행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북·중 무역의 현황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한편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북 정책과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안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차례

<b>제1장 서론</b> .....	<b>15</b>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5
2. 연구 방법과 내용 .....	17
<b>제2장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의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b> .....	<b>19</b>
1. 북·중 무역의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	19
2. 라오닝성의 북·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	25
3. 지린성의 북·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	30
<b>제3장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 형태와 거래관행의 변화</b> .....	<b>35</b>
1.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의 형태별 분류 .....	36
2. 접경지역에서의 주요 거래 품목 동향 분석 .....	56
3.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의 주체 및 방식 .....	64
4. 물품 통관 및 대금결제 방식 .....	66
<b>제4장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밀무역 현황</b> .....	<b>74</b>
1. 북·중 밀무역의 역사 .....	74
2. 2000년대 이후 밀무역의 발전 현황 및 지역 분석 .....	78
3. 북·중 밀무역의 주요 특징 .....	87
4. 대북제재 이후 북·중 밀무역의 동향 .....	90
<b>제5장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통상구 교역의 동향과 특징</b> .....	<b>93</b>
1. 접경지역 통상구의 수출입 동향 .....	95
2. 북·중 통상구 교역의 특징 .....	105

제6장 대북제재가 접경지역 북·중 무역 거래관행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	108
참고문헌 .....	116
Executive Summary .....	120



## 표 차례

표 2-1. 최근 5년간 북한의 대외무역 권역별 현황 및 점유 비중	19
표 2-2. 북한의 대외무역 대중국 의존도	22
표 2-3. 랴오닝성의 대북 수출입 현황(2010~16. 9)	26
표 2-4. 지린성의 대북 수출입 현황(2010~16. 9)	31
표 3-1. 북·중 무역에서 섬유(의류) 품목의 중국 무역수지	48
표 3-2. 북·중 무역 중 중국의 신발류(HS:64) 무역액	49
표 3-3. 북·중 무역의 지역별(접경지역·비접경지역) 구성	57
표 4-1.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밀무역의 발전 단계 및 특징	80
표 4-2. 접경지역에서의 밀무역 주요 방식	82
표 5-1. 북·중 통상구 개황	93



## 그림 차례

그림 2-1. 북한의 아시아권 주요 수출입 대상국(한국·중국·일본) 비중 변화 .....	20
그림 2-2.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변화 .....	22
그림 2-3. 북한의 대중수출 .....	23
그림 2-4. 북한의 대중수입 .....	23
그림 3-1. 북한의 대중 일반무역 수출 .....	37
그림 3-2. 북한의 대중 일반무역 수입 .....	37
그림 3-3.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대중 일반무역 수출 .....	37
그림 3-4.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대중 일반무역 수입 .....	37
그림 3-5. 북한의 대중 변경무역 수출 .....	41
그림 3-6. 북한의 대중 변경무역 수입 .....	41
그림 3-7.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대중 변경무역 수출 .....	42
그림 3-8.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대중 변경무역 수입 .....	42
그림 3-9. 북한의 대중 가공무역 수출 .....	44
그림 3-10. 북한의 대중 가공무역 수입 .....	44
그림 3-11.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대중 가공무역 수출 .....	44
그림 3-12.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대중 가공무역 수입 .....	44
그림 3-13. 북한의 대중 임가공 수출 .....	46
그림 3-14. 북한의 대중 임가공 수입 .....	46
그림 3-15. 북한의 대중 보세무역 수출 .....	51
그림 3-16. 북한의 대중 보세무역 수입 .....	51
그림 3-17.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대중수출 .....	52
그림 3-18.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대중수입 .....	52
그림 3-19. 북한의 중국 접경지역 주요 수출 품목 .....	58

그림 3-20. 북한의 중국 비접경지역 주요 수출 품목 .....	59
그림 3-21. 북한의 비접경지역 광물 수출 .....	60
그림 3-22. 북한의 접경지역 광물 수출 .....	60
그림 3-23. 북한의 중국 접경지역 주요 수입 품목 .....	61
그림 3-24. 북한의 중국 비접경지역 주요 수입 품목 .....	62
그림 3-25. 북한의 의류품목 접경지역 수출입 동향 .....	62
그림 3-26. 북한의 중국 접경지역 의류 수출 .....	63
그림 3-27. 북한의 중국 접경지역 의류 수입 .....	63
그림 4-1. 북·중 접경지역 초기 민간무역 및 밀무역 성행 지역 (랴오닝성) .....	77
그림 4-2. 북·중 접경지역 초기 민간무역 및 밀무역 성행 지역 (지린성) .....	77
그림 4-3. 압록강 하구 .....	84
그림 4-4. 대대자 세관 부근의 지형 .....	85
그림 4-5. 수풍댐 .....	86
그림 4-6. 후산창청 부근의 북·중 접경지역 .....	87
그림 5-1. 지린성 도로 통상구의 대북수출 동향 .....	97
그림 5-2. 지린성 도로 통상구의 대북수입 동향 .....	97
그림 5-3. 지린성 도로 통상구의 대북 수출입 동향 .....	98
그림 5-4. 지린성 철로 통상구의 대북수출 동향 .....	99
그림 5-5. 지린성 철로 통상구의 대북수입 동향 .....	99
그림 5-6. 지린성 철로 통상구의 대북 수출입 동향 .....	99
그림 5-7. 단둥 통상구의 수출 동향 .....	100
그림 5-8. 단둥 통상구의 수입 동향 .....	100

그림 5-9. 단동 통상구의 수출입 동향 .....	101
그림 5-10. 지린성 도로 통상구의 입출경 유동 인원 동향 .....	103
그림 5-11. 지린성 도로 통상구의 입출경 교통수단 동향 .....	103
그림 5-12. 지린성 철로 통상구의 출입경 유동 인원 동향 .....	104
그림 5-13. 지린성 철로 통상구의 교통수단 동향 .....	104
그림 5-14. 단동의 대북 유동 인원 동향 .....	105
그림 5-15. 단동의 대북 교통수단 동향 .....	105



##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는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상품·기술·재원의 북한 이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첫 번째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며 구체적인 대북제재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였고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안을 추가로 채택·시행해왔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UNSC의 2270호 결의안 시행은 기존의 대북제재보다 더욱 광범위한 영역의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기존의 UNSC 대북제재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2270호 대북제재 역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하고 중국의 성실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2270호)와 관련하여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표명하였고 2016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과의 무역 금지 품목을 발표하는 한편, 6월과 9월에는 금지 품목을 거래한 북한 측 고위간부 체포와 랴오닝성 홍샹그룹 등 북·중 간 무역을 주사업으로 하는 중국 측 무역회사에 대한 전면 조사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북·중 양국은 오랫동안 상호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며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은 4차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 상황에도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대북제재에 아무런 영향을 받

고 있지 않다는 듯이 자력갱생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과 핵·경제병진노선을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고위급 인사를 중국에 파견하고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고위인사와 회담하는 한편, 중국과의 대외무역을 통하여 북한 체제 및 경제 운영에 필요한 물자들을 조달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해나가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무역관계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2006년 일본의 대북무역 금지 조치로 인한 북·일 무역 단절과 2010년 한국의 5·24 조치 시행으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듯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광물자원의 수요 급증과 중국 기업의 대북 무역 및 투자 증대가 그 자리를 대체하였고 북한 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더욱 증대되어 갔다. 그간의 UNSC의 대북제재와 한·미·일의 독자적인 양자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북·중 무역 거래 증대의 요인이 되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UNSC의 대북제재로 북·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랴오닝성·지린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중 무역의 종합적인 거래관행 연구와 대북제재로 인한 변화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자료는 북·중 간 무역 통계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대북제재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간 거래관행의 변화 등 제도적 분석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종운, 홍이경(2013)의 선행연구<sup>1)</sup>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기존의 단편적인 북·중 무역 거래관행 분석에서 벗어나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중심으로 한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북제재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의 거래관행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북·중 무역의 현황과 체계에

---

1) 이종운, 홍이경(2013),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대한 이해를 고취하는 한편,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과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안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과 내용

본 연구자료는 선행 연구 자료의 문헌 조사, 중국해관 통계, 한국무역협회 통계, UN 통계 등을 이용한 북·중 무역의 통계 데이터 분석, 북·중 접경지역(랴오닝성·지린성) 현지조사를 통한 관계자 면담 및 동향 관찰, 전문가 간담회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중 무역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그동안 시행되어온 대북제재 이후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북·중 무역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각 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무역협회·중국해관·UN 등을 통해 수집된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북·중 전체 무역과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북·중 접경지역(랴오닝성·지린성)에서 거래되는 주요 품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 형태와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는 한편, 무역 주체, 통관, 대금결제 방식 등 북·중 무역 거래의 일련의 과정에서의 변화를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그간 심도 있게 연구되지 않았던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밀무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북·중 간 밀무역은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교역 방식임에도 선행 연구에서 깊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접

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거래 관행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밀무역 현황, 구조, 주요 특징,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상품과 인적교류가 통상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북·중 접경지역 통상구 교역의 구조와 특징,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중 간 거래의 성격을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장에서는 제2~5장에서 분석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거래 관행과 북·중 간 경제협력 현황, 대북제재로 인한 변화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 거래 관행에 대한 대북제재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집필진은 연변대학교 한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 환일본해경제연구원(ERINA)과 공동으로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중국 선양, 다롄, 단둥 등 랴오닝성 지역과 엔지, 훈춘, 투먼 등 지린성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 및 북·중 무역·투자 종사자, 관계자 인터뷰 등을 진행함으로써 본 보고서의 연구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 1. 북·중 무역의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북한은 구소련·중국 등 전통적인 우방국가와의 대외무역을 내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북한의 대외무역 주요국 변화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1990년 이전 소련 및 동유럽권 국가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2/3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아시아권 국가의 비중이 59.7%를 차지하면서 북한 대외무역의 주요 대상국은 소련 및 동유럽권에서 아시아권으로 변화하였다.

표 2-1. 최근 5년간 북한의 대외무역 권역별 현황 및 점유 비중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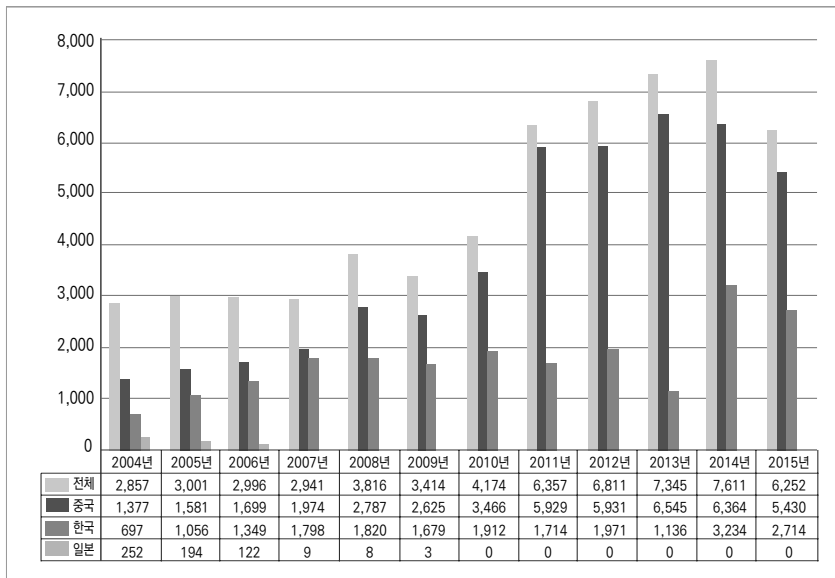
연도 \ 권역	아시아	CIS	미주	유럽	아프리카	중동
2011	5,937,002 (93.98)	103,646 (1.64)	120,564 (1.91)	148,329 (2.35)	4,330 (0.07)	3,146 (0.05)
2012	6,483,427 (95.23)	102,266 (1.50)	79,663 (1.17)	90,137 (1.32)	49,303 (0.72)	3,481 (0.05)
2013	6,979,781 (95.03)	105,370 (1.43)	135,157 (1.84)	77,869 (1.06)	42,816 (0.58)	3,796 (0.05)
2014	7,265,685 (95.46)	134,982 (1.77)	104,155 (1.37)	68,067 (0.89)	32,459 (0.43)	5,533 (0.07)
2015	5,983,329 (95.71)	124,407 (1.99)	73,377 (1.17)	30,664 (0.49)	28,602 (0.46)	11,437 (0.18)

자료: KOTRA(2015 북한 대외무역 동향); pp. 12~13. KOTRA 통계(검색일: 2016. 9. 23)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아시아 국가 중 북한 대외무역의 주요 대상국은 중국·한국·일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의 대북교역은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증대되어 중국과 함께 북한 대외무역의 주요 대상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1·2차 핵·미사일 실험으로 북한산 물품의 전면 수입 차단과 일본 제품의 북한 수출 금지 등의 제재를 시행하면서 전면적인 무역 관계가 단절되었다.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에 이은 북한의 대외무역의 주요 대상국이였으나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5·24 조치가 시행되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이 중단되게 되었다. 또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이후 우리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의 유일한 통로였던 개성공단마저 폐쇄함으로써 남북교역이 전면 차단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림 2-1. 북한의 아시아권 주요 수출입 대상국(한국·중국·일본) 비중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OTRA(2004~15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KITA; e나라지표(남북교역추이, 검색일: 2016. 10. 19); 중국해관정보망 통계(검색일: 2016. 9. 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렇듯 일본과 한국의 독자적인 양자 대북제재 시행으로 북한과의 대외교역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다자제재와 함께 북·중 간 교역 증대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중 간 대외무역은 2000년대부터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북·중 무역의 활성화는 상호 경제협력 강화에 촉매제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00년대에 북·중 무역이 급속한 성장을 보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있다. 북한의 광산자원은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매장량도 상당히 풍부하다. 하지만 에너지·식량·원자재 등의 부족으로 자원 개발 효율성은 3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었다.<sup>2)</sup>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의 공장으로서 발돋움하였고 중국 상품은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2000년대 중국 경제는 철강·무연탄 등 자원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철강·무연탄 등의 광물 수입에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요구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스럽게 북한과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시장 진출에 있어 낮은 진입장벽, 저렴한 노동력과 중국의 기술·자본이 결합된 양국간 경제협력이 무역 거래 성장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2000년대 북·중 간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은 광물자원 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 측은 광산 채굴 설비, 운수 차량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생산된 광물을 중국으로 들여왔다. 이러한 구상무역 형태의 투자는 당시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익이었으며 중국 입장에서도 자국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회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중 무역 수출입 품목 구조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 북·중 무역은 ① 북·중 간 무역 규모의 급속한 증대 ②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대 ③ 중국의 대북 수입 증대 ④ 중국의 대북한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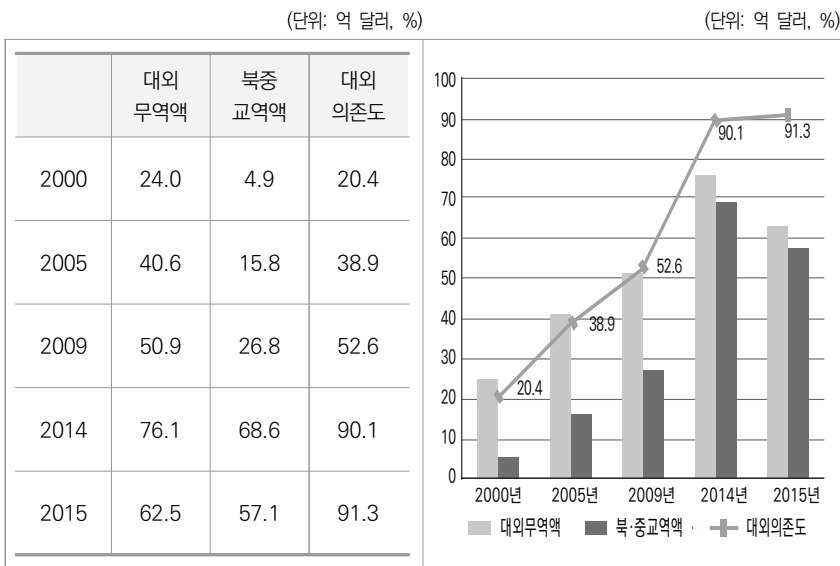
2) 林今淑(2009), p. 4.

출입 상품 구조의 변화 ⑤ 중국의 대북무역 지역이 동북3성 위주에서 산둥성, 강소성, 사천성, 하북성 등 남방연해안 지역으로 확대 등의 특징을 나타내며 변화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특징들은 지속되고 있다.

2006년 대북제재 시행 후 2009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26억 8,000만 달러로 대외무역에서 북·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 이상(52.6%)을 넘어선 후 해를 거듭할수록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역대 최고액인 68억 6,000만 달러(원유 포함),<sup>3)</sup> 무역의존도는 90.2%에 달하였다. 2015년에는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전년대비 16.5% 감소한 57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무역의존도는 91.3%로 전년동기대비 1.1%p 증가하였다(표 2-2 참고).

표 2-2. 북한의 대외무역 대중국 의존도

그림 2-2.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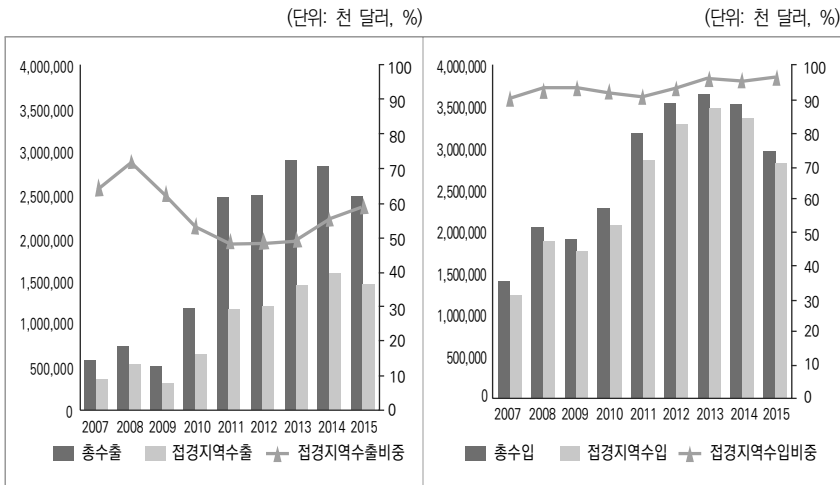
자료: KOTRA(2004~15년 북한 대외무역동향); KITA 통계(검색일: 2016. 9. 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원유는 HS code 27090000을 지칭. 중국해관 통계에서는 2014년부터 원유 수출에 대한 통계를 누락시키고 있으나 KOTRA는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50만 톤)액을 2014년 5억 달러, 2015년 2억 8,0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음.

북한의 대중무역에 대한 종합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2-3, 2-4]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수입 규모가 대중수출에 비해 크며 중국에 대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중 간 전체 무역 중 접경지역에서 일어나는 무역 비중을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접경지역의 비중은 2007년(89.8%)을 제외하고는 전 분석 기간(2007~15년)에 걸쳐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중수입이 대부분 접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접경지역의 비중은 2008년에 70% 수준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4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대중수출 품목은 무연탄·철광석 등의 광물성 자원으로 대규모로 벌크 형태의 선박을 이용하여 접경지역이 아닌 중국의 비접경지역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2-3. 북한의 대중수출

그림 2-4. 북한의 대중수입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대북제재(2270호)의 영향으로 잠시 감소세를 보이던 2016년 1/4분기 북·중 무역액은 11억 9,7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

이 4차 핵실험으로 인한 새로운 제재의 시행을 예측하고 필요한 물량을 조기에 수입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2월 김정일 생일, 4월 태양절, 5월 개최된 당대표 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수입한 것이 1/4분기 북·중 무역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가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과의 거래 금지 품목을 발표한 후, 2/4분기 북·중 무역액이 13억 4,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효과가 가시화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3/4분기 북·중 무역은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한 15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sup>4)</sup>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북·중 무역액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40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sup>5)</sup> 이러한 추세라면 2016년 북·중 무역액은 UNSC의 2270호 제재 이전인 2015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국제사회의 역대 최고 수위로 평가받는 2270호 대북 제재가 북·중 전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고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대북제재의 효과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sup>6)</sup>

북·중 무역에서 최근 몇 년간 일어난 가장 큰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액이 연간 약 12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은 평균 매월 1억 달러 정도의 무연탄을 중국에 수출하였다. 무연탄 수출이 국제가격 변동에도 연간 12억 달러로 안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6년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은 매월 1억 달러에서 감소세를 보여 매월 8,000만 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2010년 이전에 비해 북한의 월간 외화수입이 1억 달러 정도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김정은 시

4) KITA, 중국무역통계www.kita.net(검색일: 2016. 9~11월).

5) *Ibid.*

6) UNSC가 11월 말, 대북제재 2321호를 채택·시행함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2016년 12월 10일에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 원산지의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 이에 따라 4/4분기 북·중 무역액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6년 전체적인 북·중 무역액의 변화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604/20160401289770.shtml>, 검색일: 2016. 10. 5).

대에 들어서면서 매년 주민생활 향상과 과학기술 진흥, 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창전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의 아파트 단지, 룡라인 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 빙상관, 과학기술전당, 중앙동물원 준공 등 평양 시내의 각종 주택, 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이러한 자금의 일부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sup>7)</sup>

## 2. 라오닝성의 북·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랴오닝성 단둥은 가장 인구가 많은 최대 국경도시이며 북한의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린성과 같이 산과 강(압록강)이 많지만 지린성에는 없는 바다와 바다로 흘러가는 하구 지대가 있다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 등과 약 2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우위와 교통 인프라 우위를 앞세워 북·중 무역 상품 집산지, 교역 중심지로 양국간 경제협력과 인적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단둥 지역은 직접적으로 신의주·남포·평양과 연결이 가능하며 한반도-중국-유라시아대륙을 잇는 중요한 교통 허브 도시이기도 하다.

동북 지역의 중요 공업도시인 단둥은 경공방직과 전자공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중국 전역에서 모인 상품은 언제든지 북한으로 수송이 가능하다. 중국 상품이 격 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북한 시장에 중국 상품이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둥 맞은편에 위치한 신의주는 북한의 4대 도시로 방직기계, 광산기계, 화학섬유, 면방직, 목재가공, 제지, 고무, 조선 등 공업이 발달해 있지만 경쟁력은 단둥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북·중 간 거래되는 육상 화물 통과량의 약 60%가 단둥을 거쳐 평양 수도권으로 운반된다. 또한 두

7)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라오닝성, 2016년 4~9월.

만강 국경 유역 부근에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린성과 달리 한족이나 만족이 많다. 북한 경제의 낙후로 중국과의 거래에서 대금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북·중 간 교역이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광산자원·특산물 등의 산업자원, 수산물 등의 해양자원으로 지급이 가능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표 2-3. 라오닝성의 대북 수출입 현황(2010 ~ 16. 9)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출입 총계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6. 9	1,105	4.6	785	-1.3	1,890.0	-	319
2015	1,455	-8.8	1,063	-6.7	2,518.0	-7.9	393
2014	1,596	12.0	1,139	3.2	2,735.0	8.2	457
2013	1,424	9.7	1,104	16.0	2,528.0	12.4	321
2012	1,299	8.1	951	5.3	2,250.0	6.9	348
2011	1,202	24.2	903	84.8	2,105.0	44.5	299
2010	968	115.8	489	89.3	1,457.0	106.4	479
2009	448	-29.8	258	-24.8	706.0	-28.1	190
2008	639	28.0	343	31.8	982.0	29.4	296
2007	499	35.3	260	26.1	759.0	32.0	239
2006	369	14.1	206	-15.0	575.0	1.4	163
2005	324	56.0	243	-37.6	567.0	-4.9	81
2004	207	34.3	389	20.5	596.0	24.9	-182
2003	154	14.7	323	48.3	477.0	35.1	-169
2002	135	-22.4	218	92.2	353.0	23.4	-83
2001	173	20.2	113	660.8	286.0	79.9	60
2000	144	21.5	15	-17.2	159.0	16.1	129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통계(검색일: 2016. 11. 16)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표 2-3]을 살펴보면 랴오닝성의 대북 무역액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5·24 조치가 시행된 2010년의 대북 무역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남북교역이 중단되면서 북·중 무역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위의 표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대북제재 시행 이후 랴오닝성의 2016년 1/4 ~ 3/4분기 대북한 교역 총액(누계)은 18억 9,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7%가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 중국 전체의 대북 교역액은 40억 8,000만 달러로 랴오닝성 대북교역 총액이 중국 전체 대북교역 총액의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0.2%p 증가한 수치이다.

2016년 3월 UNSC 대북제재(2270호)가 시행되고 중국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북·중 무역의 중심지인 단둥 지역에서는 일련의 변화를 보였다. 대북제재 시행 초기 단둥 지역에서의 북·중 무역 변화를 살펴보면,<sup>8)</sup>

첫째, 북한 선박의 단둥항 입항 불허이다. 단둥 동항에는 평소 2~3대의 북한 선박이 정박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행 후 중국 교통부로부터 27척의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문서를 하달받고 입항하는 북한 선박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단둥항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르린(日林)그룹은 이전의 대북제재로 1~2년 전부터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르린그룹이 UN 기금을 사용하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어 UN의 정책조 협조의 일환으로 북한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중국계 은행들의 북한 관련 서비스 업무 중단이다. 북·중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북한 송금 서비스, 북한인과 북한기업 명의의 계좌 개설 등 서비스를 제공하던 단둥 소재의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중국 은행들은 2016년 초 대북제재가 실시되기 전부터 이미 북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다.

셋째, 북한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에 대한 변화이다. 대북제재 시행 전

---

8) KIEP 전문가 간담회, 2016. 10. 5, 2016. 11. 10.

중국은 자국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암묵적으로 북한 생산 제품을 중국산 제품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주었고 중국 기업은 이를 근거로 한국 등 제3국으로 제품을 수출하였다. 대북제재 시행 후 북한산을 중국산으로 바꿔 원산지 증명을 해주던 관행을 일체 근절하였다고는 하나 북·중 간 보세무역의 증가와 중국으로 수입된 보세무역 품목이 다시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제3장의 보세무역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넷째, 단동세관의 통관 절차 강화이다. 대북제재(2270) 시행 초기, 차량에 적재된 모든 품목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요원이 무작위로 지정하여 물품 목록과 실제 화물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품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차량에 실은 모든 물건의 통관이 불가능하다. 개인이 휴대하고 통관하는 수화물 역시 X-ray 검사후 가방을 모두 열어보게 하고 한 품목이라도 제한량을 초과하면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북한에서 들여오는 소규모 공예품이나 액세서리 가공품은 거의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최근에는 일일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외화별이가 용이한 북한산 마약류 제조에 이용될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특수한 화공약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세관의 강화된 움직임은 한·미 사드(THAAD) 배치 결정 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제재 이전과 비교해 보면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결제 방식의 변화이다. 예전부터 북·중 간 무역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북한 기업들은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의 추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 측에 현금이나 현물 위주로 대금을 결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섯째, 페이퍼 컴퍼니의 활성화이다. 대북제재(2270호)로 제3국 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하려 할 경우 중국인 명의의 기업과 계약을 하고 무역거래를 진행한다. 물론 북한에서 투자한 페이퍼 컴퍼니이다. 중국 기업 역시 북한에 우호적인 제3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금지 품목에 대한 북·중 무역을 진행

한다. 이처럼 대북제재를 우회하여 거래하는 경로는 얼마든 존재하고 있으며 홍상(鴻祥) 같은 경우를 그 실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일곱째, 북한 사업가들은 사업 수주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북제재(2270호) 이후 북한산 제품의 수출 판로 제한 등으로 외화벌이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무역일꾼, IT(소프트웨어 개발)·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임가공업자 등은 단둥 등 접경지역에서 중국 및 제3국 기업들에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 제공과 같은 우대 조건을 제시하는 등 주문 수주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지 대북 사업가의 설명이다.<sup>10)</sup>

마지막으로 밀무역의 성행이다. 중국의 소형 선박(1~10톤급 이하)들은 자유롭게 압록강 하구를 건너 직접 북한의 항구로 들어가거나 공해상에서 상호간 거래를 진행한다. 이렇게 진행된 거래로 광물·생활용품·수산물 등이 손쉽게 중국으로 건너오고 있으며 중국 관계기관은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바로 공식적인 통계에도 집계되지 않는 밀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변화들을 종합해 보면 대북제재(2270호)가 단둥 지역에서 북·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아닌 대북제재로 인한 변화라는 것이다. 대북제재(2270호)가 장기화되고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둥 통상구 내에서는 화물을 실은 차량과 북한·중국 관광객들로 매우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대북제재 상황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sup>11)</sup>

---

9) KIEP 전문가 간담회, 2016. 10. 15, 2016. 11. 10

10)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지린성 무역업 종사자 인터뷰, 2016년 9월.

11)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랴오닝성 단둥, 2016년 4~9월.

### 3. 지린성의 북·중 무역 현황과 대북제재 이후의 변화

지린성은 중국 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개의 성(省)중 하나로 북·중 무역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지린성 대외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한반도에서 보부상 등 상인들이 두만강을 건너 중국 내륙으로 왕래하였으며 북한 건국 후인 1950년대부터 무역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지린성의 대북무역은 빠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2000년 9,075만 달러에서 2015년 10억 달러로 약 11배 넘게 성장하였다. 이는 지린성과 북한 간의 지리적 접근성과 활발한 민간무역을 포함한 변경무역이 이루어낸 성과였다. 하지만 지린성의 대북한 무역은 중국의 기타 지역, 특히 랴오닝성 단둥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협력 정도와 규모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린성 대북무역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대북한 무역 규모가 작고 ② 변경 무역 회사들의 경쟁력이 약하며 ③ 물류 이동의 교통 인프라 시설이 낙후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지린성에는 공식적으로 9개의 대북한 통상구가 있지만 중국의 대북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이고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도 대부분 소규모의 변경 무역 업체들이다. 따라서 단둥의 전문화된 대북 수출입 업체들과 비교해볼 경우 가격·서비스 등의 면에서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지린성 내에는 주로 9개(소규모 임시 통상구 제외)의 대북한 통상구가 있다. 그중 옌벤 지역에 위치한 취안허(圈河), 사튀쯔(沙陀子), 투먼(圖們), 카이산툰(開山屯), 썬허(三合), 난핑(南平), 구청리(古城里) 등 7개 통상구가 지린성 대북한 무역량의 8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sup>12)</sup>

12)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지린성 접경지역, 2016년 4~9월.

표 2-4. 지린성의 대북 수출입 현황(2010 ~ 16. 9)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출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6. 9	429,354	4.2	264,063	-13.7	693,417.0	-	165,291
2015	598,302	-20.8	406,400	-6.1	1,004,702.0	-15.5	191,902
2014	755,598	43.5	432,954	28.6	1,188,552.0	37.7	322,644
2013	526,451	25.5	336,621	30.0	863,072.0	27.2	189,830
2012	419,617	6.8	259,025	-6.1	678,642.0	1.5	160,593
2011	392,886	56.7	275,706	63.0	668,592.0	59.2	117,181
2010	250,703	-1.7	169,195	169.3	419,898.0	32.1	81,508
2009	255,063	-40.0	62,836	-67.6	317,899.0	-48.7	192,227
2008	425,154	176.1	194,207	66.5	619,361.0	128.8	230,948
2007	153,972	40.1	116,675	-7.7	270,647.0	14.5	37,296
2006	109,933	-20.4	126,361	22.4	236,294.0	-2.1	-16,428
2005	138,182	45.0	103,212	-1.9	241,394.0	20.4	34,970
2004	95,282	-3.1	105,204	113.0	200,486.0	35.7	-9,922
2003	98,365	20.6	49,382	47.4	147,747.0	28.4	48,982
2002	81,554	-11.0	33,502	36.1	115,056.0	-1.0	48,052
2001	91,652	26.5	24,622	34.5	116,274.0	28.1	67,030
2000	72,456	45.8	18,301	-8.3	90,757.0	30.3	54,155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통계(검색일: 2016. 11. 16)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표 2-4]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지린성의 대북 무역량은 201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루어왔다. 2015년의 경우 동북3성의 대외 무역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대북무역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지린성의 대북 무역액은 약 10억 달러로 중국 전체 대북 무역액 54억 3,000만 달러의 1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북제재(2270호) 시행 후 지린성의 2016년 1/4 ~ 3/4분기 대북무역액(누계)은 6억 9,000만 달

러로 전년동기대비 3.4%가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 중국 전체의 대북 무역액은 40억 8,000만 달러로 지린성 대북 무역액이 중국 전체 대북 무역액의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1%p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2016년 지린성의 대북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북수출의 경우 7월부터 상승세를 보였으나 광물 수입 감소, 9월 태풍으로 인한 북한 측 접경지역의 도로 유실로 인한 중국 측 접경지역 통상구 폐쇄 등의 원인으로 대북 수출이 차질을 빚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린성의 일부 연구자들은 접경지역에서 지린성이 북·중 무역 중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라는 견해도 있으나 통계 자료를 분석해보면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주로 연변 지역의 대북무역에서 북한 무산철광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광분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철광분 수입이 북한 측의 규제와 교통 인프라 미약 등의 원인으로 연변지역 통상구가 아닌 산둥성·랴오닝성 등 기타 지역의 항구를 통해 수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현지 인터뷰를 통해 도문시에 소재한 H무역(海華)그룹의 석탄 물량이 도문이나 훈춘 지역 통상구를 거치지 않고 다롄항을 통해 북한에서 수입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sup>13)</sup>

현지 인터뷰와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단둥 지역과 달리 지린성 지역은 대북제재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의 변경무역 위주이므로 제재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한다.<sup>14)</sup> 현실적으로 지린성의 대북무역은 변경무역 또는 민간무역 위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무역량에서 무산철광의 철광분 수입이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다른 지역의 세관을 통해 수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취안허 통상구 등 지린성 내 대북 통상구들의 물량이 원상 유지 또는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북한 당국 내부에서 중국에 광산자원을 수출하지 말자는 의견이

13)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지린성 접경지역, 2016년 4~9월.

14) *Ibid.*

제기되었으며 이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무산철광의 철광분 수입 감소가 대북제재(2270호)보다는 북한 쪽 규제<sup>15)</sup> 등의 원인이 더 크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견해이다.

대북제재(2270호)로 인한 지린성 대북무역의 변화를 살펴보면<sup>16)</sup> 취안허 통상구를 통해 대형 트럭과 소형 자가용, 태양발전기 설비 등의 제품들이 수출되고 있다. 이는 예전에는 나타나지 않던 현상으로 지린성 대북무역의 새로운 동향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1월 중국 H그룹은 취안허 통상구를 통해 북한에 15대의 대형 굴착기와 10대의 대형 트럭을 수출하였으며 3월에 태양발전기를 취급하는 중국 G기업은 나선에 2,250만 달러의 태양발전기 설비를 수출하였다. 또한 5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제일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한 '웨이즈(威志)' 소형 승용차 35대가 한 대당 6,400달러에 북한으로 수출되었고 이 차량들은 나선시에서 택시로 이용될 예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될 것이라고 한다.

기존 교역 품목의 변화를 살펴보면<sup>17)</sup> 중국 상무부가 2016년 4월과 9월에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한 후 투먼 H그룹의 청진 철강업체로의 연간 15만 톤에 달하는 코크스 수출과 엔지시 T그룹, 투먼시 X무역회사 등의 청진 제철기업으로부터의 철광석 미분 수입 등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수산물 수입검역 통상구로 지정되어 있는 취안허 통상구를 통한 훈춘시 대북수입의 가장 큰 품목인 수산물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훈춘시 Y의류회사 등이 나선시 의류회사들과 진행하고 있는 침직품 가공 무역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중국 W그룹은 북한 양강도 혜산 동광에 2억 달러의 큰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사업 진행 도중 북한이 동광분 수

---

15)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시 단둥시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장성택 처형 후 북한은 전체적으로 지하 자원의 대중수출을 감소시키고 있고 무산철광역시 철광분에 대한 대중국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함.

16)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지린성 접경지역, 2016년 8~11월.

17) KIEP 전문가 간담회, 2016. 10. 5.

출을 제한하는 조치로 큰 애로를 겪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W그룹은 창바이(長白) 세관을 통하여 20% 함량인 동광분을 수입하고 있다. W그룹의 동광분 수입으로 몇 년 전만 해도 창바이 세관을 통한 대북 교역액은 3,000만 달러 정도였으나 2015년에는 1억 2,000만 달러로 대폭 늘어나 지린성의 대북 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창바이 세관은 동과 아연 등 대북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등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만포시와 마주한 지안(集安)시의 대북 교역액은 약 3,000만 달러로 주로 목재 가공 제품, 기계설비, 경공업 제품 등이 교역 품목이며 대북 제재 이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6년 11월 말 채택·시행되고 있는 2321호 대북제재에서는 아연·동 등의 광물 품목들이 추가로 지정된 만큼 향후 교역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 접경지역 주요 통상구별 현황을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은 단동의 경우 중국 건국 초기부터 1951년 7월까지 지속되었으며<sup>18)</sup> 지린성의 경우 1954년 10월 중국 대외무역합작부가 연변 지역의 조선족들에게 원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연변-북한 간 변경무역을 승인함으로써 연변주와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에서 시작되었다.<sup>19)</sup> 그 후 북·중 간 변경무역은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8년 랴오닝성과 지린성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변경무역에 대한 협정<sup>20)</sup>을 맺으면서 1961년 재개되었다. 1966년까지 지속된 변경무역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또다시 중단되었다가 1981년 9월 재개되었다. 중국 정부가 1992년 발표한 ‘변경무역관리완화’ 조치로 북·중 간 변경무역은 활기를 되찾고 규모 또한 증가하였다.

지린성 연변자치주는 1994년까지 중국 전체 북·중 무역의 60% 정도를 차지하면서 북·중 무역의 중심지이자 주요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1996년 이후 단동 지역의 북·중 무역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북·중 무역의 중심지는 지린성 연변주에서 랴오닝성 단동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랴오닝성 단동이 중국 전체 북·중 무역의 70%를 차지하면서 북·중 무역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중 무역의 중심지가 지린성 연변주에서 단동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원인은 ① 도로, 철도, 해상 운송을 구비한 단동 지역의 교통 인프라 우위 ② 중국 접경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북한 지역의 경제력 차이 ③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로 인한 연변 지역에서의 교역 감소 ④ 2000년대 한국 기업의 단동 진출로 인한 북한과의 거래 활성화 등으로 볼 수 있다.

18) 沈晓丹(2009), p. 1.

19) 박명서(2014), p. 29.

20) 1958년 랴오닝성-지린성 대표단과 조선소비협동조합중앙연맹은 ‘关于中朝两国边境地方易货贸易协定书’ 협상을 맺고 변경지역의 무역거래 재개를 협의함.

# 1.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의 형태별 분류

## 가. 일반무역

중국해관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북·중 전체 무역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여기서 분석한 통계자료 연구 기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로 북·중 전체 무역에서 일반무역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절대액도 전반적으로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 소폭 감소, 2013년 대폭 증가하여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2014년과 2015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HS코드 2단위로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수출 품목 중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광물성 연료, 에너지(27)<sup>21)</sup>이며 이 중 대부분은 무연탄(270111)이다. HS Code 27번 품목은 북한의 대중수출 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대중수출 총액뿐 아니라 일반무역 규모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무연탄과 철광석 등 북한 지하자원의 수출 감소 때문으로 추정된다.

북·중 접경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가 없으나 대중수출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그림 3-1~3-4 참고).

---

21) ( ) 안은 HS Code 2단위임.

그림 3-1. 북한의 대중 일반무역 수출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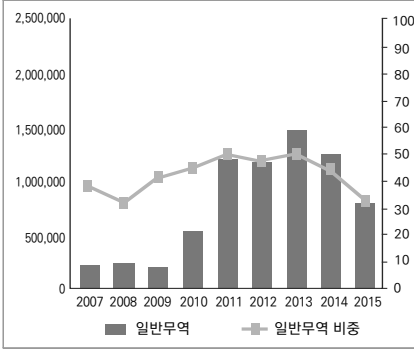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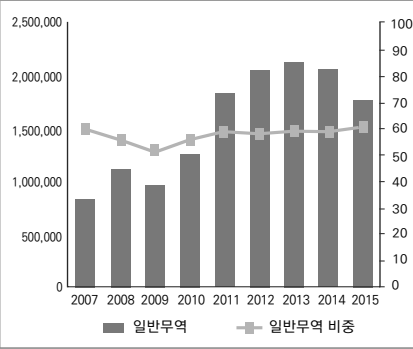


그림 3-2. 북한의 대중 일반무역 수입

(단위: 천 달러, %)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3.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대중 일반무역 수출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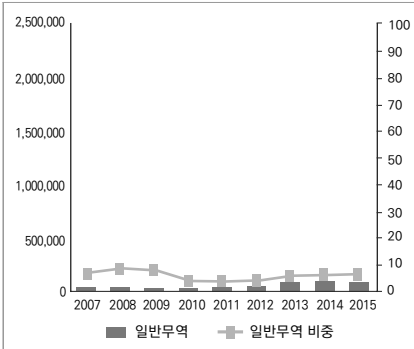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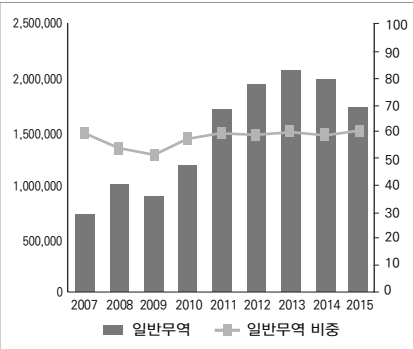


그림 3-4.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대중 일반무역 수입

(단위: 천 달러, %)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중국은 대북제재(2270호)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의미로 북한의 무기 개발과 관련한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을 금지 품목에 포함시켰다.<sup>22)</sup> 하지만 북·중 무역에서 전체적인 규

22) 중국 상무부는 2016년 4월 5일 공고에서 민생 증진을 위한 목적이며 나진항을 경유해 운송되어 온 핵개발이나 미사일 관련성이 없는 석탄·철·철광석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모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국제사회에서도 대북제재(2270호)에 대한 효과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제재 대상 물품들이 대부분 무기 개발과 관련된 품목이며 UNSC와 중국이 민생 목적의 교역 품목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전체적인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UNSC의 대북제재 효과와 관련한 많은 연구 보고서에서도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sup>23)</sup>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9월 초 또다시 5차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9월 중순에는 중국의 홍상(鴻祥)그룹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무역을 주사업으로 하는 중국의 메이저급 무역회사들이 북한과 금지품목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중국의 대북제재(2270호) ‘적극 이행’이라는 강력한 요구가 이어졌다.

2010년 한국의 5·24 조치로 남북 교역이 중단되면서 북·중 간 수출입 모두에서 일반무역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현상이 대북 제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제재 상황에도 북·중 간 일반무역의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일단 한국의 양자제재가 북·중 무역 감소에 큰 영향은 미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특징 중 하나는 대중수출액보다 대중수입액이 항상 많아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무역 규모에서도 수입과 수출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2011년 이후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일반무역의 비중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컸다면 대중수출에서는 일반무역의 비중이 2013년까지는 50%에 도달했으나 줄어들어 2015년에는 30%대로 감소하였다. 이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

---

외에도 북한산 금광, 티타늄광, 바나듐광 및 히토류 광물, 항공연료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604/20160401289770.shtml>, 검색일: 2016. 10. 5).  
23) 정형곤, 방호경(2009); Noland, Marcus(2009).

만 북한이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보세 무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린성 대북 무역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0% 정도로 단둥 지역의 일반무역 위주의 무역구조와 비교해볼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또한 현지 인터뷰에 따르면 대북한 수출 품목은 주로 식량, 코크스, 복장, 자동차 엔진 및 부품, 건축자재 등이며 북한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주로 철광석, 비합금 생철, 해산물, 무연탄 등이다.<sup>24)</sup>

현재 지린성 내 대북 일반무역에서 무역액 5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은 대체로 35~40개 정도이고 무역액은 2015년의 경우 약 5억여 달러 정도이다. 2016년 이후 지린성의 대북무역은 대체로 현상 유지 내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북제재(2270호)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역대금 체납, 동일제품의 국제시장 가격 하락, 북한 측의 자원 고갈 또는 규제 강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 2015년과 2016년에 연이은 함경북도 수재 등으로 건축자재(시멘트 포함)의 수출은 다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sup>25)</sup>

## 나. 변경무역

중국 정부는 건국 이후 러시아·인도·베트남·라오스·미얀마·네팔·몽골 등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변경무역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변경무역 장려를 위해 1984년 변경소액무역잡행관리방법을 제정하는 한편, 1996년과 1998년 이를 보완하는 법규들을 발표하면서 변경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해나갔다.<sup>26)</sup> 변경무역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국가들에 한하여 적용하는 특수한 제도인데 국경을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24)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지린성 접경지역, 2016년 4~9월.

25) *Ibid.*

26) 国务院关于边境贸易有关问题的通知(1996); 关于进一步发展边境贸易的补充规定的通知(1998); 박명서(2014), pp. 15~16.

15km 이내의 지역 호구(거주자격)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3,000위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2008년 중국 국무원은 변민호시무역에서 1인당 면세 한도를 8,000위안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하였다.<sup>27)</sup> 실제로 이러한 관세 혜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소규모 변경무역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타 지역의 큰 무역회사들이 변경 지역에 대표처를 설립하고 무역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sup>28)</sup>

변경무역은 중국 법률에 따라 국경지역에서 이뤄지는 ‘변경소액무역’, ‘변경호시무역’,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 등을 망라하는 개념이다.<sup>29)</sup>

변경무역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접하는 곳에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북·중 무역에서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만 가능하다. 이들 접경지역은 북·중 무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북·중 간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변경무역이 북·중 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수입 측면에서는 일반무역 다음으로 규모가 큰 무역 형태이고 수출 측면에서는 일반무역, 보세창고 수출입 화물 다음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무역 형태이다. 대중수입에서 변경무역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생필품이나 잡화 또는 기타 원자재 품목들이 주로 변경무역 형태의 거래로 이루어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의 변경무역만을 고려했을 때는 대중 수입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대중수출에서는 일반무역을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2012년까지 전체 변경무역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최장호 외(2015)<sup>30)</sup>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북한의 대중수출의 경우 무연탄과 철광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대부분 변경에서 소액으로 거래되기보다는 기업

27) 이종운, 홍이경(2013), pp. 56~57.

28) 중국 평균 관세율은 12%, 평균 증치세율은 17%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변경무역을 통한 경우 일반무역을 통한 것보다 14%가량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 들어 북중 간 변경무역에 주어지던 세제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되고 있음. 랴오닝성과 지린성 정부는 이미 변경무역 관련 세제감면 대상 품목을 대폭 축소함(KOTRA, 경제속보, 2004. 10. 29).

29) 홍익표(2006), p. 194.

30) 최장호 외(2015), p. 145.

간 대규모 거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박 등으로 벌크 수송되어 산동성 등 기타 지역으로 수출되고 대부분 일반무역 형태로 거래된다.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변경무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5년에는 15%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절대액도 2012년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지린성 취안허 통상구의 신두만강대교, 단동의 신압록강대교 등 건설과 단동의 중조호시무역구의 정식 운영 등 북·중 간 경험으로 변경무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7월 중순 단동시에 호시무역구<sup>31)</sup>가 중국 세관의 정식 허가를 받고 운영에 들어갔으나 대북제재(2270호)의 영향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입주한 중국 측, 북한 측 상점이 매우 적고 활발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32)</sup>

그림 3-5. 북한의 대중 변경무역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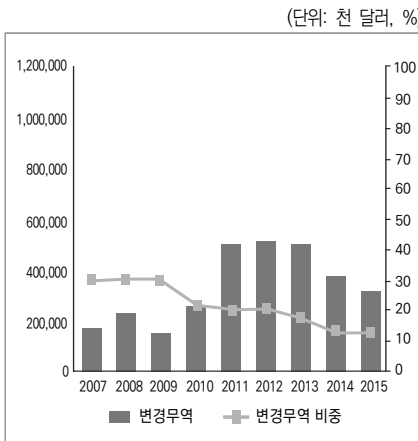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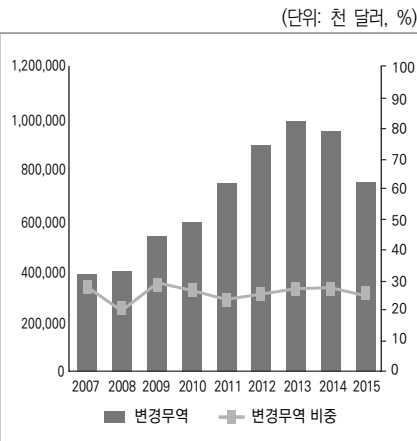


그림 3-6. 북한의 대중 변경무역 수입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1) 이 무역구는 근대 이전부터 운영되었으며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접경지대의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단동 지역경제 및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단동 지역에 조성된 이 무역구는 2016년 7월 26일 중국 세관의 정식 허가를 받고 정상 운영을 시작함(国门湾互市贸易区, [http://dbzxs.ndrc.gov.cn/zttp/zxxz/201510/t20151030\\_757197.html](http://dbzxs.ndrc.gov.cn/zttp/zxxz/201510/t20151030_757197.html), 검색일: 2016. 10. 5).

32)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랴오닝성 단동시, 2016. 4~9월.

그림 3-7.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대중 변경무역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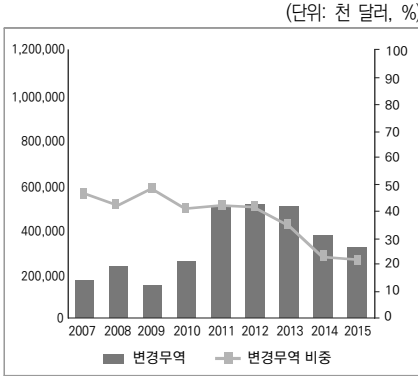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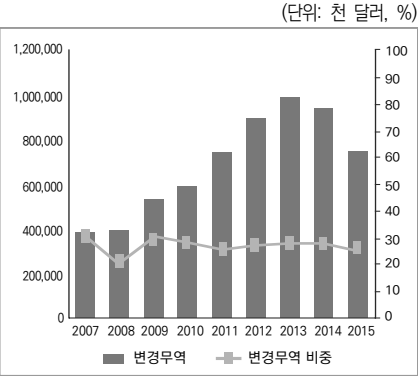


그림 3-8.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대중 변경무역 수입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지린성 옌벤 지역의 대북무역을 랴오닝성 단둥 지역의 대북무역과 무역 형태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변경무역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약 1,400km의 북·중 국경에서 약 1,200km가 지린성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즉 단둥과 마주하고 있는 신의주는 북한의 중부 지역으로서 북한의 정치·경제 중심지인 평양과 200km 정도로 가까이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현대화된 철도로 이어져 있는 반면 지린성이 마주한 북한 지역은 대부분이 경제 발전 정도가 뒤쳐진 변두리에 위치한 지방으로 교통물류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다. 현지 인터뷰<sup>33)</sup>에 따르면 현재 지린성과 북한 간의 변경무역은 지린성 전체 무역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대북제재(2270호)와 상관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린성의 무역상들이 대북제재 이후 북·중 무역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견해는 바로 표면상으로 보이는 변경무역만을 보고 설명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변경무역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매년 1·2월은 변경무역에 필요한 물품이 상대적으로 적고 중국 국경지역 주민들이 ‘춘지에(설날)’ 등 명절 등으로 명절 연휴 이후로 거래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33)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지린성 옌벤주 훈춘시 관계자 인터뷰, 2016년 9월.

또한 지린성의 대북한 변경무역은 단둥 등의 지역과 달리 주로 소규모의 중국 상인들이 통상구를 거쳐 북한으로 건너가 북한 특산품 또는 수산물들을 구매하거나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중국에 돌아와 도매 또는 판매하는 형태이다. 실제로 취안허 통상구의 경우 매일 평균 30~40명 정도의 보따리 상인(주로 한족)이 통상구를 거쳐 나선 지역 장마당에 가서 수산물(계절에 따라 다름, 주로 마른 낙지, 계류 등)을 구매해 온다고 한다.<sup>34)</sup>

## 다. 임가공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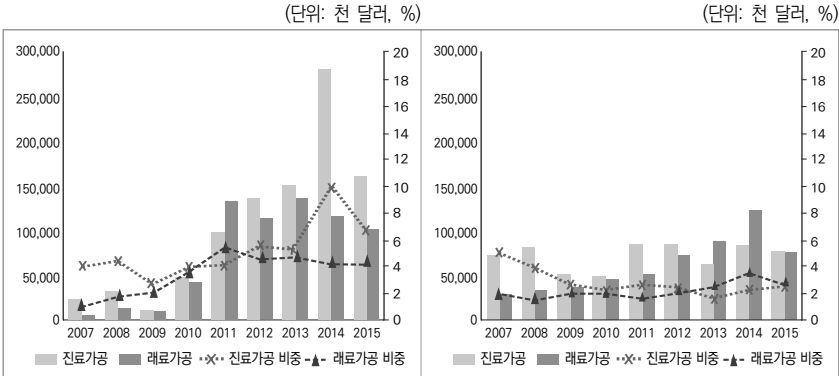
임가공무역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래료가공’과 ‘진료가공’이 있다. ‘래료가공’은 위탁가공으로 해외 기업이 중국 내 기업에 원자재와 설비를 제공하면 중국 내 수탁기업은 가공 공정만 맡아 진행하고 그 공정에 대한 임가공비용을 지급받는 형식의 가공업이다. ‘진료가공’은 중국 내 기업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을 통해 완제품 또는 중간재를 생산하여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무역 형태이다.

중국의 대북수입에서 가공무역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래료가공은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대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진료가공은 규모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전체 무역에서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에는 상대적으로 진료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았으나 그 이후로는 두 가공무역 모두 2~3%대에 머물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 기간 중 2009년과 2013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2010년 한국의 5·24 조치 등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0년 이후 가공무역의 절대 규모는 2014년까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34)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지린성 옌벤주 훈춘시 관계자 인터뷰, 2016년 9월.

그림 3-9. 북한의 대중 가공무역 수출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0. 북한의 대중 가공무역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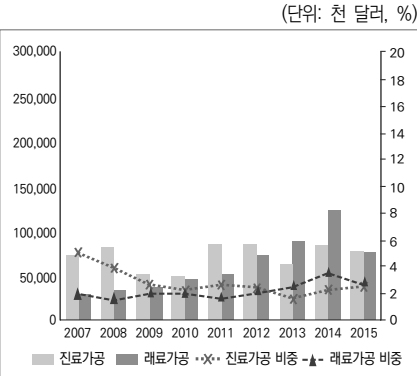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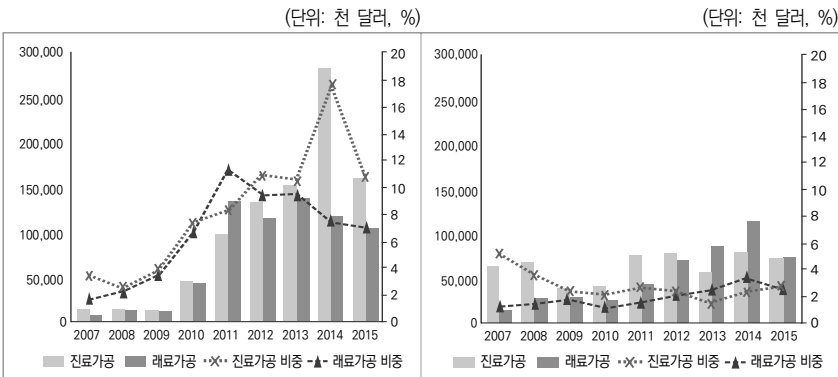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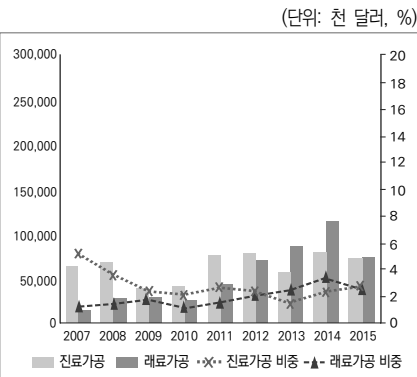


그림 3-11.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대중 가공무역 수출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2.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대중 가공무역 수입



가공무역 역시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전체 수입과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출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절대 가공무역 수출량은 전체 수출과 접경지역 수출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비중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접경지역의 가공무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9년부터 99% 이상의 가공무역이 접경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단둥 및 다롄 지역의 북·중 무역 관계자들에 따르면<sup>35)</sup>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 임가공무역 시, 중국에서 원자재를 북한에 수출하고 북한 가공 공장에서 가공 공정을 거쳐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진료가공’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러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들은 중국 내수가 아닌 제3국으로 수출된다. 하지만 현지조사에서 중국 내수를 목적으로 가공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출경가공’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북·중 가공무역이 점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에서 북한 공장에 위탁가공을 맡겨 완제품이 중국 내수를 위해 수입될 때 완제품 가격에 대한 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위탁가공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제도이다. 이는 제3국 수출을 원칙으로 하는 래료가공이나 진료가공 무역과 구분되며 2013년부터 새로 허가된 제도이다. 수출원료 가공무역은 특히 완제품이나 중간재를 중국으로 다시 반입한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지 않더라도 출경가치 증가 부분의 관세와 수출절차세만 부과하여 일정 부분 면세 혜택을 준다는 점이 래료 및 진료 가공무역과는 구별된다. 출경가공 무역이라는 항목이 중국 세관 자료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없으나 수출원료 가공무역(出料加工贸易, outward processing)이라는 항목에 해당하는 무역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 기업이 원재료나 반제품을 외국에 수출하여 중국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공 공정을 의뢰한 후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를 다시 수입하고 가공 공정에 대해서만 가격을 지불하는 형식의 무역’<sup>36)</sup>이며 세계세관기구에서 정의하는 ‘Outward Processing’의 정의 역시 ‘역내 제품을 생산, 가공, 수리를 위해 외국으로 수출한 후 일정 공정을 거친 후 재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일부 또는 완전히 면제받는’ 형식의 무역으로 출경무역과 같은 개념의 항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항목에 대해 북·중 간 수출입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시점이 2013년부터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무역 방식은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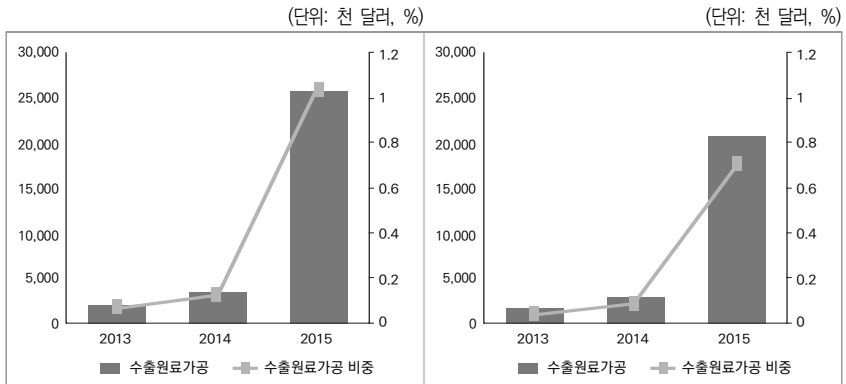
35)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라오닝성·지린성, 2016. 4~9월.

36) 중국해관, <http://www.china-customs.com/customs/data/2102.htm>(검색일: 2016. 10. 20).

경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출경가공 무역이 중국 세관 자료의 수출원료 가공무역 항목에 기록되고 있다면 현지 북·중 무역 관계자들의 말대로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4년과 2015년 사이 수출원료 가공무역에서 북한의 대중수출과 수입 모두 약 7배 증가하였다. 훈춘 지역에만 출경가공 규모가 2015년에 전년도에 비해 200% 증가하였다<sup>37)</sup>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통계가 현지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직 통계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단동의 가공무역 회사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sup>38)</sup> 대북제재(2270호) 이후로 중국 기업들의 대북 위탁가공 주문 또는 출경가공 주문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의류가공 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평양 지역의 의류가공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후 인력 송출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외화 획득 통로가 좁아짐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닌 의류 부문의 비교우위를 이용해 가공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3. 북한의 대중 임가공 수출      그림 3-14. 북한의 대중 임가공 수입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7) 길림신문 「훈춘 출경가공업무 200% 증폭」(2016. 3. 14), [http://kr.chinajilin.com.cn/econ/content/2016-03/14/content\\_170570.htm](http://kr.chinajilin.com.cn/econ/content/2016-03/14/content_170570.htm)(검색일: 2016. 10. 20).

38)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지린성 훈춘시 관계자 인터뷰, 2016년 4~9월.

지린성 대북한 임가공무역 역시 의류 품목의 임가공 형태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지·훈춘 등 지역의 의류회사들이 섬유·폴리아미드 등의 원자재를 나진 등의 지역에 수출하여 북한 현지에서 가공 후 재반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지린성 훈춘시의 관계자에 따르면<sup>39)</sup> 현재 훈춘시 소재의 20여 개 중소형 의류회사들이 북한 나진 소재 의류회사들과 임가공 형태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연변 지역의 대북한 임가공 무역 총액은 4,2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훈춘시 개발구에는 한국·중국의 대표적인 의류생산 기업들이 입주해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북·중 접경지역에서 임가공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섬유(의류)가공, 신발류의 가공이다. [표 3-1]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9월 북·중 무역 통계에서 섬유 및 의류의 HS코드(2단위)별 중국의 무역수지를 비교한 것이다. 의류는 북한의 주요 대중수입 품목이다. 2016년 1~9월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의류 품목에 대한 대북 무역수지는 -4억 7,500만 달러이며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한 HS 51-63는 모두 섬유원부자재 제품인데 2016년 1~9월 대북 무역수지는 3억 8,200만 달러이다. 북한은 중국에서 섬유제품을 많이 수입한다. 북한 국내에서는 비단과 일부의 합성 섬유(비니론) 외에는 생산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류를 생산하기 위한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하는 섬유원부자재 품목의 무역수지와 북한에서 수입하는 의류제품들의 무역수지를 계산해보면 2016년 1~9월의 경우 북한이 약 9,27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간으로 환산해보면 섬유(의류) 품목의 거래에서 약 1억 2,359만 달러 정도의 무역흑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sup>40)</sup>

39) *Ibid.*

40)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랴오닝성 단둥시, 2016년 4~9월.

표 3-1. 북·중 무역에서 섬유(의류) 품목의 중국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HS 코드	품목명	2014년 1~9월	2015년 1~9월	2016년 1~9월
61	의류(편물제)	-26.57	-63.99	-19.07
62	의류(편물제 외)	-473.40	-449.83	-456.34
무역수지 (수입초과) 소계		-499.97	-513.81	-475.40
51	양모·수모	12.97	13.15	10.17
52	면·면사면직물	22.36	19.36	22.41
54	인조필라멘트섬유	129.38	112.94	130.15
55	인조스테이플섬유	75.90	45.01	51.57
56	워딩·부직포	45.12	29.03	34.49
58	특수직물	23.73	24.07	26.04
59	침투,도포한직물	30.60	27.98	27.88
60	편물	71.34	57.01	60.13
63	기타 섬유제품·닝마	19.01	18.86	19.88
무역수지 (수출초과) 소계		430.40	347.40	382.72
실질 무역수지 (수입초과액)		-69.57	-166.41	-92.69

자료: Global Trade Atlas, <http://www.its.com/products/maritime-global-trade-atlas.com>(검색일: 2016. 10. 13).

[표 3-2]는 중국의 신발류에 대한 대북 무역수지를 계산한 결과이다. 해마다 중국의 대북수출이 감소하고 북한의 대중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신발류에 대한 수입 대체가 진행되면서 대중국 가공무역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식료품이나 생활필수품에 대한 국산화를 급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점점 가시화되는 현상으로 보이며 북·중 간 가공무역은 섬유(의류), 신발류를 중심으로 하여 해마다 변동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sup>41)</sup>

41)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료양성 단둥시, 2016년 4~9월.

표 3-2. 북·중 무역 중 중국의 신발류(HS:64) 무역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기간	2014년 1~9월	2015년 1~9월	2016년 1~9월
수출	45.40	22.30	19.73
수입	0.04	0.12	0.53
총액	45.44	22.41	20.26
무역수지	45.36	22.18	19.20

자료: Global Trade Atlas, <http://www.ihs.com/products/maritime-global-trade-atlas.com>(검색일: 2016. 10. 13).

## 라. 보세무역

보세무역에는 보세구중계화물(Entrepot trade by bonded area)과 보세창고수출입화물(Bonded warehousing trade)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보세구중계화물은 보세구역에서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이 추가적인 가공 또는 포장 공정 없이 재수출되는 무역 방식을 일컫는다. 이는 전통적으로 싱가포르·홍콩·두바이 등과 같은 물류 허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 형태로 수입되는 화물이 바로 재수출되어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는 장거리를 항해하는 화물선들이 중간에 다른 화물선으로 화물을 옮김으로써 운송 중 사고 등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동인에서 비롯되었다.

보세창고수출입화물 역시 수입된 물품이 세관을 통과하기 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인데 원칙적으로 제3국으로의 재수출을 위한 면세 물품의 보관을 위한 창고이다. 중국의 보세창고수출입화물의 조건은 앞에서 설명한 가공무역을 위한 원료, 바로 제3국으로 재수출될 통과 물품, 국제 선박이나 비행기용 부품이나 연료, 수입 물품의 유지 보수를 위한 예비 부품, 외국인 사업가에 의한 일시적인 물품 보관,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보통 수입품 등이다. 가공무역에 쓰일 원료가 즉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식으로 이용되는데 이때 가공무역 공정에 쓰이지 않고 남은 원료에 대해서 제3국에 재수출되지 않고 국

내에 반입되는 경우 일반무역과 같은 관세율 적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세창고는 국가 소유와 사적 소유가 있어 창고를 일정 기간 렌트하는 대가로 보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

중국에서는 보세구를 2개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다.

첫째, 세관특수관리구역(海关特殊监管区域)이다. 이 지역에는 보세구(保税区), 수출가공구(出口加工区), 보세물류단지(保税物流园区), 초국경 공업단지,<sup>42)</sup> 보세항구(保税港区), 종합보세구(综合保税区)들이 포함된다. 랴오닝성에는 다례에 보세항(大连大窑湾保税港区), 보세구(大连保税区), 보세물류단지(大连保税区) 1곳씩과 수출가공구(大连出口加工区, 沈阳出口加工区) 2곳이 있으나 접경지역인 단둥시에는 현재 없는 상황이며 향후 종합보세구를 건설할 계획이다.<sup>43)</sup>

둘째, 보세관리장소(保税监管场所)이다. 이 형태에는 수입보세창고(进口保税仓库), 수출관리창고(出口监管仓库), 보세물류센터(保税物流中心)가 포함된다. 단둥시에는 3곳의 보세창고가 있으며(SK保税仓库, 天达保税仓库, 丹东市外贸保税仓库), 둥강시에도 몇 개 보세창고와 수출관리창고가 있다.<sup>44)</sup>

중국의 대북수입을 살펴보면 북한으로부터의 보세무역이 2010년에 큰 규모로 늘어났고 이후 지속적으로 3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규모와 비중 모두 보세구중계화물에 비해 보세창고화물무역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세창고가 가공무역을 위한 원자재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 생산 제품의 제3국 수출을 위해 보세무역창고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북·중 보세무역의 80% 이상을 의류(HS코드 61, 62번) 품목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보세무역을 통한 북한의 제3국으로의 무역이 섬유(의류) 품목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중국과 마카오에 걸쳐 설치된 주해초국경공업단지(珠海跨境工业园), 중국과 카자흐스탄에 걸쳐 설치된 호르고스 변경협력구(霍尔果斯边境合作区) 등이 있음.

43)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랴오닝성 단둥시, 2016년 4~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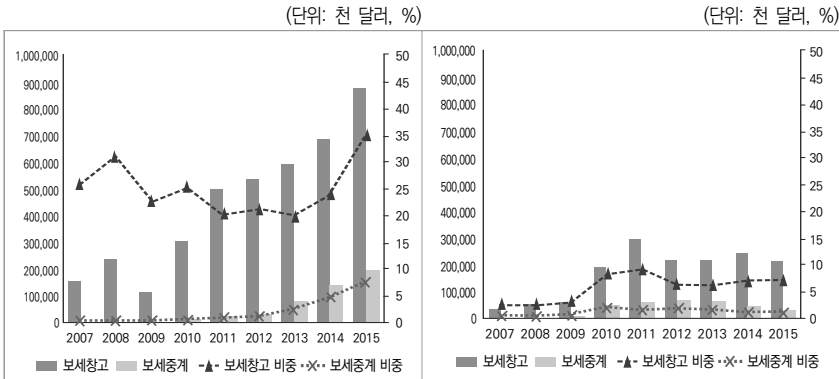
44) *Ibid.*

대중수출에서 보세무역은 보세참고화물 무역의 규모가 분석 기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09년, 2010년 이후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전체 수출에서 무려 35%를 차지해 일반무역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 형태로 변화하였다. 보세구중계화물 역시 대중수출에서 규모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보세무역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대중수출에서 보세무역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비중은 30~40%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공무역의 경우와 같이 접경지역에서의 보세무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의 보세무역 수출 비중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보세무역이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의 대중국 보세무역 전체 수출에서 접경지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까지는 98% 이상이었고 이후에도 70% 이상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북한의 보세무역 형식의 대중수출 대부분이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입도 마찬가지로 수출만큼은 아니지만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인다.

그림 3-15. 북한의 대중 보세무역 수출

그림 3-16. 북한의 대중 보세무역 수입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7.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대중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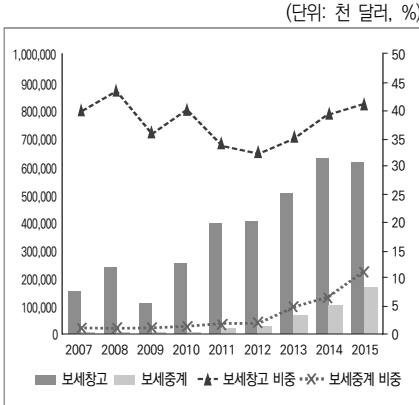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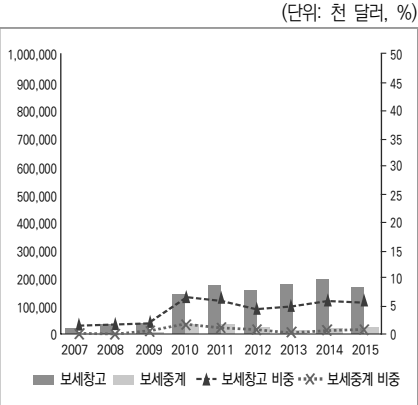


그림 3-18.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의 대중수입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특이한 점은 북·중 무역에서 중국 전 지역이나 접경지역에서 대중수입의 규모가 대중수출보다 큰데, 보세무역에서는 대중수출의 규모가 대중수입보다 월등히 큰 것을 볼 수 있다. 보세무역은 보세구역을 거쳐 제3국으로 재수출되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성상 북한 생산 품목이 중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재수출되는 제품의 규모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보세무역 수출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5·24 조치 이후 중국을 통해 한국·일본 등의 제3국으로의 우회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단동에 소재한 보세물류창고 관계자는<sup>45)</sup> 2010년 5·24 조치 이후 한국의 주문이 많이 끊긴 상태이며 북한에서 나오는 물류의 대부분이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동 지역에서 북한과 한국 사이에 중계자 역할을 담당하던 한국인 기업가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5·24 조치의 이러한 결과는 정은이, 박종철(2014)<sup>46)</sup>에서도 상세히 보고되고 있다. 2016년

45)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라오닝성 단동시, 2016. 4~9월.

46) 정은이, 박종철(2014), pp. 293~341.

3월 대북제재(2270호) 실시 후 북·중 접경지역의 보세창고 물류가 감소하여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단둥 지역으로 쏠리면서 금지 품목인 일부 전자기기나 화학 제품들의 유통이 금지됨으로써 창고 점유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랴오닝성 단둥 지역의 보세무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동(大東)항에는 2012~15년 단둥-남포 간 컨테이너 항로가 시험적으로 취항한 바 있으나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따동항을 포함한 단둥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관련 보세무역은 기본적으로 ①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서 선박으로 따동항이나 랑터우항에 들어온 화물이 단둥 지구 안에 있는 보세창고에 보관된 후 북한에 육로로 수송되는 방식 ② ①과 같은 화물이지만 단둥 지역에서 중국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보세수송되어 북한에 선박 혹은 육로로 수송되는 방식 ③ 제3국에서 중국 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보세구 등에 들어가 보세수송으로 단둥 지역까지 운반되어 육로로 북한에 운송되는 방식 ④ 북한에서 육로로 단둥 지역으로 운송되어 보세창고에 들어간 후 다동항이나 랑터우항에서 선박으로 제3국에 수송되는 방식 ⑤ 북한에서 육로로 단둥으로 수송되고 보세창고에 들어갔다가 중국 국내의 다른 보세구 등으로 보세 수송되고 주로 선박으로 제3국에 수송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보세구에서 수출입 절차를 살펴보면<sup>47)</sup> 중국 국내에서 화물을 보세구에 '수출'하고 보세구 내에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은 기업이 그 화물을 보세구에서 '수입'하고 외화로 수입대금을 결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세구 내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지면 면세 혜택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환불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활용성이 많다. 다만 현재 북한 측 거래 당사자들은 이러한 현대적인 물류 시스템과 수출입 세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보세구를 본래의 의미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중 무역에서 보세구의 장점을 이용하는 거래들은 거의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

47) KIEP 전문가 간담회, 2016. 10. 5.

다. 이처럼 단둥 시내에 있는 보세창고<sup>48)</sup>에 화물이 납입되어 수출신고가 이루어지면 ‘수출’이 실현되며 그 창고에서 세관의 검사를 받아 봉인된 화물은 단둥 도로세관에서의 검사를 기본적으로 생략하고 서류 확인을 거친 다음에 다리를 건너 북한으로 수송된다.

랴오닝성의 무역통계에 나타나는 보세무역 수출입 통계는 북한을 포함한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가는 물동량뿐만 아니라 단둥 외의 도시, 특히 다롄시에 있는 각종 보세구 등으로 들어갔다 가 보관, 포장 및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중국 국내에 반입되거나 국외에 수출되는 화물도 포함되어 있다.<sup>49)</sup> 단둥시에는 보세구가 없고 보세창고만 있으며 보세가공 등은 주로 다롄과 선양에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sup>50)</sup>

지린성의 보세가공무역은 매우 소규모이며 주로 훈춘수출가공구(珲春出口加工区)에 위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훈춘수출가공구 국제물류유한회사(珲春出口加工区国际物流有限公司)로 주로 의류업을 취급한다. 2015년 대북 수출 8,400여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2016년에 들어서면서 특히 대북제재(2270호) 이후 대금체납 등의 원인으로 수출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한다.<sup>51)</sup>

북·중 간 보세무역도 제3국 → 단둥도착 → 북한으로 운송되거나 북한 → 단둥도착 →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단순한 형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단둥 보세창고에 들어가 그곳에서 중국 국내로 보세수송되고 다롄이나 심지어는 상

48) 한국에서 많이 보도되는 대북무역에 많이 쓰이는 단둥시내 보세창고로 단둥시수출입유한책임회사(단둥시수출입회사)가 운영하는 화원거리에 있는 丹东市外贸保税仓库(花园库)가 있음.

49)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랴오닝성 단둥시, 2016년 4~9월, 2014년 기준, 중국에는 보세구 14개, 수출가공구 47개, 보세물류단지 및 보세물류중심 34개, 보세항 14개, 종합보세구 38개, 초국경 공업단지 2개가 있으며, 그중 랴오닝성에는 다롄보세구, 다롄수출가공구, 잉커우물류중심, 다롄 대야만 보세항, 선양종합보세구가 소재함.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에는 종합보세구 건설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건설되어 있지 않음.

50)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랴오닝성 단둥시, 2016년 4~9월, 물론 보세창고에 들어갔다 가 보세상태를 유지하고 세관의 감독하에 가공을 할 것은 일반적인데, 따라서 단둥시에 보세구가 없다고 해서 보세 화물에 대한 가공이나 포장이 일체 불가능한 것은 아님. 북·중 접경지대인 길림성 훈춘시에는 수출가공구가 있음. 다만 훈춘시는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음. 앞으로 중국의 대북무역이 정규화됨에 따라 단둥시에도 종합보세구 등의 시설이 건설될 전망이다.

51)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랴오닝성 단둥시 무역조사자, 2016. 4~9월.

하이, 선전 등 중국 여러 곳으로 이동되어 재수출되는 경우도 일정 비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주변국과의 접경지역에 다수의 보세구를 건설, 운영하고 있다.

대북제재(2270호) 상황에서도 보세창고를 이용한 중국의 대북수출이나 북한에서 제3국으로,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수송에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제4차 핵실험 전부터 제3국에서 북한으로 수송되는 화물에 대한 중국의 검사 강화 소문이 있었지만 일반 화물에 한해서는 큰 물류 장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sup>52)</sup>

## 마. 바터무역(구상무역)

바터무역(barter trade)이란 ‘화폐(신용장·어음 등)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물물교환을 하는 거래’를 말하며 오늘날에는 ‘2국간 수출입액을 일정 기간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게 하여 대차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정하는 거래 방법인 2국 간 청산계정’<sup>53)</sup>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상무역은 바터무역의 한 형태이며 ‘수출입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무역’인데 이 정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일 계약서 내의 수입과 수출을 상계하는 경우이다(협정의 구상무역). 따라서 한 계약이 아닌 계속되는 다수의 거래 사이에 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무역통계상의 ‘교체거래’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광의의 구상무역).

52) 제3국에서 중국을 거쳐 북한에,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제3국에 가는 화물에 대한 검사는 2016년의 제4차 핵실험 전부터 강화된 분위기임. 필자의 북한 무역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집행에 있어 북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무역을 허용하고 있지만 무기 거래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 그리고 이중 용도 물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3) 창원세관, <http://english.customs.go.kr/kcshome/main/dic/DictionaryView.do?jsessionid=shNyXkrJm0pin7ynr0LJfFcR7vQZCvv0XXLgzvQYBNmh4bLvNx4w!38168827?layoutMenuNo=14944&pageUnit=10&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Word=&type=1&vocald=388>(검색일: 2016. 10. 20).

외화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과의 거래에서 수출입 대금을 상계하여 외화 결제를 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한 광의의 구상무역은 거래 대상자와의 신뢰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 거래 초기에 많이 쓰인다. 그뿐만 아니라 단동 지역의 중국 상인들은 소규모의 대북투자 사업에도 광의의 구상무역 방식을 쓰기도 한다.<sup>54)</sup> 이때 세관신고를 할 때 쓰이는 무역 방식은 변경소액무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sup>55)</sup>

## 2. 접경지역에서의 주요 거래 품목 동향 분석

북·중 무역 중 대부분의 거래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둔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접경지역에서 거래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북·중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에서 거래되는 주요 수출입 품목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이 두 지역에서의 북·중 무역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접경지역이라 함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랴오닝성 선양, 다롄(단동 포함) 세관, 지린성의 창춘 세관에서 집계된 통계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전체 북·중 무역 중 접경지역에서 거래되는 비중은 모든 기간에 걸쳐 70% 이상을 유지하

54) 단동 지역 중국 무역상들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단동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할 때 많은 경우 중국 상무부에 해당하는 해외투자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사업에 필요한 기계류와 차량, 연료, 자재류, 소모품들, 심지어는 북측 노동자의 작업복, 헬멧, 산발, 내의류까지 모두 다 중국에서 수출하여 투자 현장에 반입하고 그 대신 생산된 석탄이나 광석, 돌 같은 물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투자 가치를 보상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55) 단동 지역 중국인 무역상들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구상무역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은 주로 변경소액무역의 혜택 때문임. 또한 수입되는 물품의 국제시장 가격 변동이 심하고 투자를 해도 계획대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계약 체결 시와 물품 수입 시의 가격이 달라지고 과세가격의 인정 등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수출 물품의 상계를 위한 물품이 수입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 결과적으로 애로사항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수출입 거래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함.

고 있었다. 이는 중국이 서부와 북부의 여느 접경지역보다 정치적·경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3. 북·중 무역의 지역별(접경지역·비접경지역) 구성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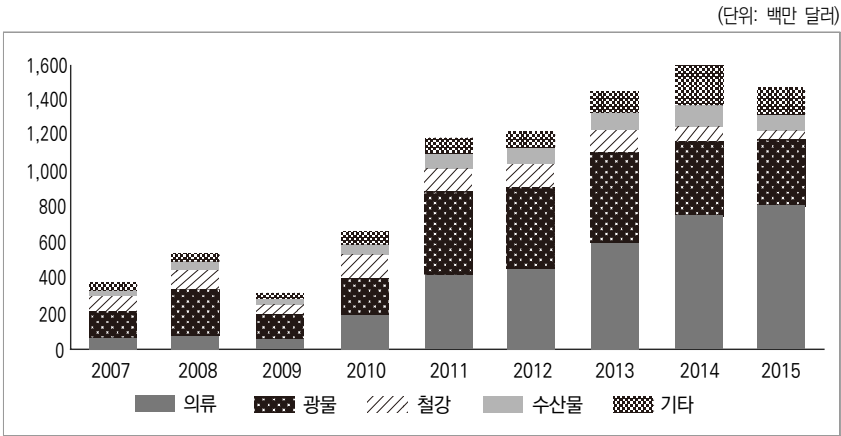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무역량	1,975	2,792	2,388	3,472	5,640	6,035	6,556	6,368	5,432
접경지역 무역량	1,637	2,453	2,102	2,799	4,085	4,536	4,929	4,976	4,324
접경지역 비중	82.9	87.9	88.0	72.4	75.2	75.2	75.2	78.1	79.6

주: 선양, 다렌(단둥 포함), 창춘(지린성 연변주 포함) 세관을 접경지역으로 봄.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먼저 최상위 품목 분류인 HS코드 2단위 품목들을 일정한 기준<sup>56)</sup>에 따라 분류하였다. 북한의 대중수출을 먼저 살펴보면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에서 거래되는 양과 품목의 종류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우선 북한에서 중국의 접경지역(선양, 다렌, 창춘 세관)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군을 살펴보면 의류가 점차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광물성 생산품, 철강 품목군 순이다. 그 밖에 수산물, 농산물, 기계 등의 다양한 품목군이 수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의 전체 대중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광물류인데 접경지역에서는 의류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볼 때 접경지역을 통한 북한의 수출은 원자재보다 가공이 완료된 의류 품목에 편중되어 있으며 수출입을 통한 분업 체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밀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6) 농산물(HS 01~02, 04~13, 15, 1601~1602, 17~24); 수산물(HS 03, 1603~1605); 광물(HS 25~27, 68); 화학류 (HS 28~38); 플라스틱과 고무(HS 39, 40); 가구, 목재, 종이(HS 44~49, 94); 의류(HS 14, 41~43, 50~67); 철강(HS 72~83); 운송(HS 86~89); 기계류(HS 84, 85); 기타(HS 45~49, 69~71, 90~93, 95~99).

그림 3-19. 북한의 중국 접경지역 주요 수출 품목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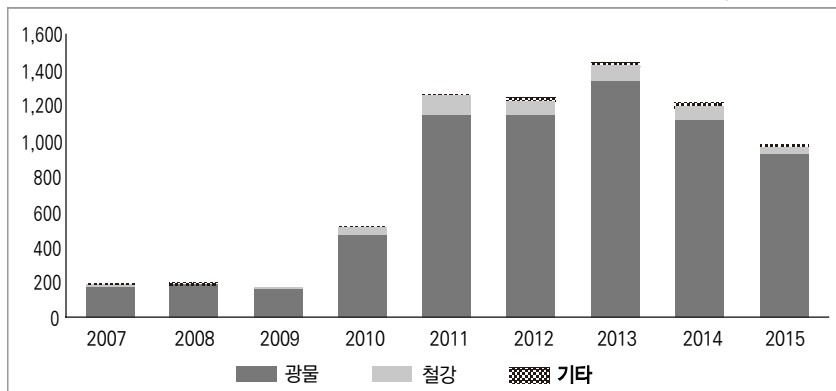
반면 북한의 중국 비접경지역 수출 품목군을 살펴보면 대부분 광물성 생산품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철강 품목이다. 의류 품목의 비중은 매우 낮으며 그나마 기타 품목군이나 수산물이 약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광물류만 따로 떼어서 살펴보면 중국의 접경지역보다 비접경지역에 훨씬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부피와 중량 면에서 갖는 광물류의 특성상 선박을 통해 산둥성 등 기타 중국 지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 사실과 일치하나 광물 수출은 2013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의류 품목의 경우 많은 가공 공정 때문에 대부분 접경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현지조사<sup>57)</sup>에 따르면 북한에서 제조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후 중국 측 접경지역에서 라벨 작업 또는 포장 작업 등의 간단한 공정 또는 반제품의 경우 일정한 가공 공정을 거친 후 중국 각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관 통계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접경지역에서의 광물 수출량은 2013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14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선 데에 반해 의류 품목 수출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7)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랴오닝성 단둥시 물류업 종사자 인터뷰, 2016년 4~9월.

북한의 광물 수출 감소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원자재 수입 둔화, 환경오염 유발 원인(북한산 무연탄의 경우 황 성분을 다수 포함)의 근절 정책으로 인한 북한산 무연탄 수입 금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북한의 대중국 접경지역, 비접경지역 모두 수출에서는 각 품목군의 구성 비율이 분석 기간 동안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총액 면에서는 어느 정도 등락은 있으나 주요 품목들이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최근 2015년에 접경지역 수출에서 의류품목의 총액이 감소했는데도 그 절대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수출 품목 중 의류의 중요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의류 품목이 광물 수출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주요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20. 북한의 중국 비접경지역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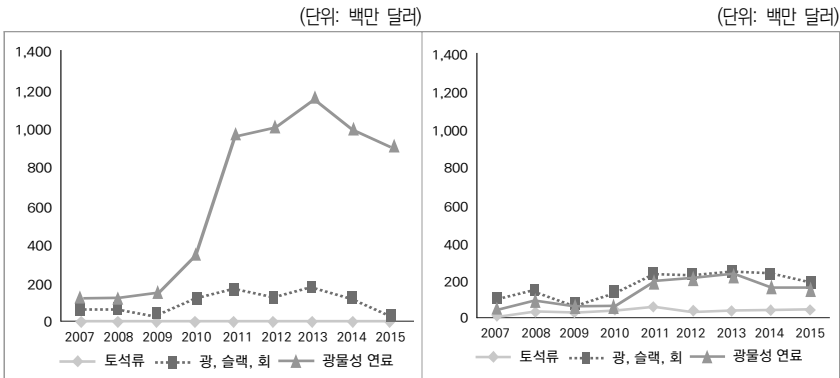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광물 품목군은 HS코드 2단위 기준으로 25, 26, 27, 68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석탄을 포함하는 27번 광물성 연료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비접경지역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외 광, 슬랙, 회 등을 포함하는 26번 품목은 중국의 접경지역·비접경지역 모두 1~2억 달러 정도의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접경지역에 조금 더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다. 중국 접경지역에서의 광물성 연료(27번)는 광·슬랙·회(26번)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북한에서 중국의 접경지역을 통해 수입된 광물 품목은 중국의 여타 지역으로 운반되어 유통될 개연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바꿔 말하자면 북한에서 중국 접경지역으로 수출되는 광물 품목들은 중국의 접경지역 또는 동북 3성 내 지역에서 직접 소비될 개연성이 높다. 중국의 기타 지역에서 소비될 광물 품목들은 벌크 형태로 대부분 산둥성(칭다오) 또는 허베이(스자좡)성으로 직접 수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21. 북한의 비접경지역 광물 수출

그림 3-22. 북한의 접경지역 광물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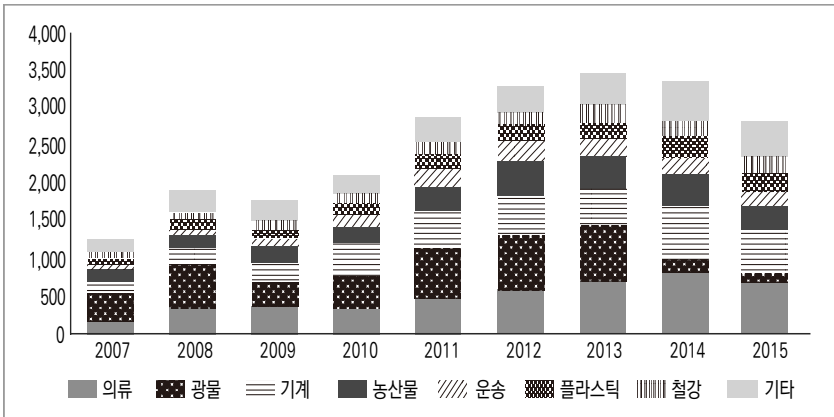
주: 토석류(HS 25); 광, 슬랙, 회(HS 26); 광물성 연료(HS 27: 석탄 포함).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수입의 경우 수출과 비교했을 때 품목군이 훨씬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수출의 경우와 같이 한두 가지의 품목군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의류·광물·기계·농산물 등 다양한 품목군이 큰 차이 없이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인다. 북한이 중국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에서 수입하는 전반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와 달리 접경지역에서의 수입 규모가 비접경지역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석 기간 동안 수입의 90% 이상이 접경지역에서 이뤄졌음을 볼 수 있다. 수출의 경우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에서 거의 비슷한 규모가 거래되는 것과는 대조된다.

그림 3-23. 북한의 중국 접경지역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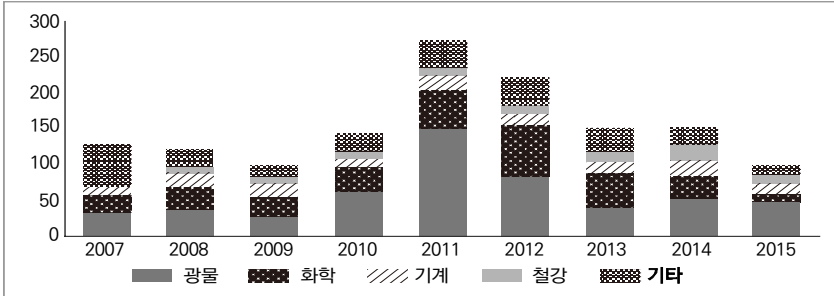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비접경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10% 남짓 정도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구성은 중국 비접경지역으로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광물 품목이 대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화학, 기계, 플라스틱, 농산물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접경지역에서의 수입과 크게 다른 점은 의류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2015년 들어 소폭 감소한 접경지역의 수입량과 달리 비접경지역에서는 2011년에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낸 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총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4. 북한의 중국 비접경지역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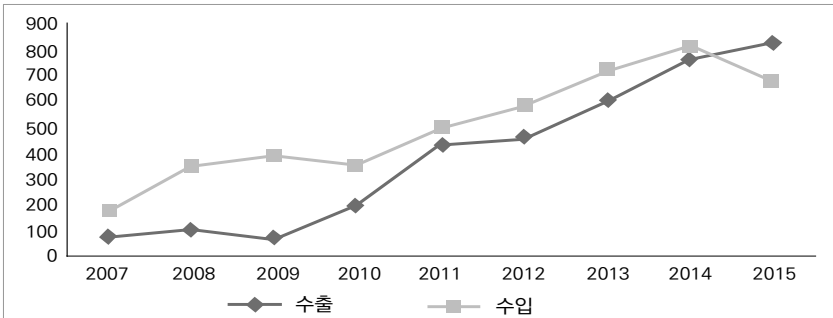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중국 접경지역에서 주요 수출입 품목군인 의류 품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중국 접경지역 총수출입 동향을 살펴 보면 북·중 간 총수출입 동향과 같이 수입량이 수출량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수입보다 수출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수출입 모든 부문에서 의류 부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져왔다는 점을 보여주며, 특히 2015년부터는 북한의 전체적인 무역수지가 항상 적자임에도 의류 부문에서만 처음으로 흑자를 이뤘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25. 북한의 의류품목 접경지역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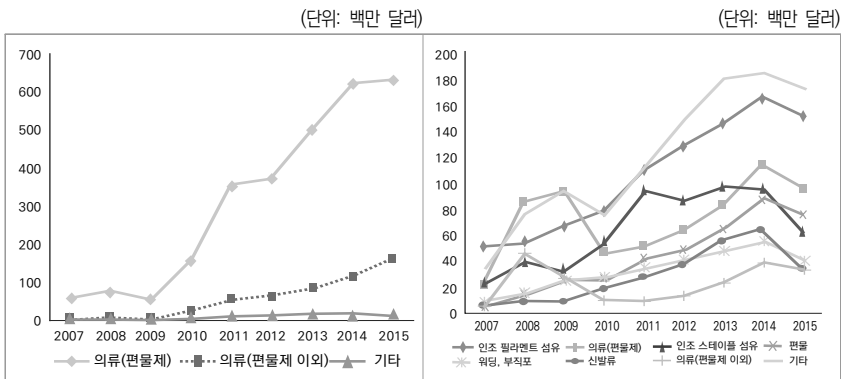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북한의 중국 접경지역에 대한 수출입 의류 품목의 HS코드 2단위 세부 품목 구성을 살펴보면 대중수출과 대중수입의 양상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중수출의 경우 의류 품목의 99% 이상을 편물의류(61번)와 편물 제외의류(62번)가 차지하고 있다. 즉 접경지역에서 의류 품목군의 대중수출은 거의 대부분이 완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대중수입을 살펴보면 의류(편물제), 신발류 등과 같이 완제품도 있지만 인조 필라멘트 섬유, 인조 스테이플 섬유 등의 경우와 같이 원자재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로 미루어봤을 때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다양한 의류 원자재가 수입되어 북한에서 가공 공정을 거친 후 중국으로 완제품이 재수출되는 위탁가공 분업 구조가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해가 갈수록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6. 북한의 중국 접경지역 의류 수출

그림 3-27. 북한의 중국 접경지역 의류 수입



주: 의류(편물제)(HS 61); 의류(편물제 이외)(HS62); 인조 필라멘트 섬유(HS54); 인조 스테이플 섬유(HS55); 워딩, 부직포(HS56); 신발류(HS64)

자료: 중국해관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요약하자면 북·중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양과 종류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의 경우 대부분 접경지역을 통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직접 수출되고 있으며 의류의 경우는 비접경

지역에서는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접경지역에서는 위탁가공 무역에 따른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새로운 비교우위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북·중 무역에 있어 접경지역에서 이뤄지는 무역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3.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의 주체 및 방식

국가 간, 무역업자 간 무역 거래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신뢰할 만한 무역 파트너를 찾는 일이다. 북·중 간 무역에서도 특히 북한은 무역 파트너(북한에서는 ‘대방’이라고 불림)를 찾는 것에 매우 신중을 기한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족<sup>58)</sup>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북·중 경협을 주체로 부상하였으며 한족이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 북한 측 사업 파트너를 찾는 첫 단계부터 조선족과 북한 화교가 중간 매개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오랜 기간 북한과의 잦은 왕래로 형성된 인맥을 이용하여 쌍방 간의 무역 파트너를 소개한다. 말 그대로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지인을 통해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받으면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북·중 간 무역계약은 ① 북·중 양측 무역회사 간의 직접적인 계약 방식 ② 중간의 제3의 회사를 이용한 계약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은 주로 공식 무역이나 북한 내 투자, 오래된 무역업자 간, 북한의 친척 등 지인 간 이루어지는 보따리상, 밀수 등의 비공식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②는 외국 기업이 북한과 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되는 방식이다.

쌍방의 무역회사 간 계약에서 중국 측의 이름 있는 무역회사 명의로 무역 계약을 하는 경우 북한 측의 모든 수속 과정이 용이하게 진행되므로 그들의 명의

---

58)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훈춘시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주로 상하이 등 남방 지역의 한족으로 이들은 광산, 부동산, 임가공 분야에서 북한과 투자 및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 단둥 지역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함.

를 빌려 쓰기도 한다.<sup>59)</sup> 계약상당 또는 구체적인 업무 협의는 주로 북한 측의 요청으로 단둥 지역으로 나와 이루어지는 편이며 거래 과정에서 협의해야 하는 문제는 주로 팩스를 이용하거나 접경지역에서 일을 봐주는 업자를 통해 핸드폰으로 이루어진다. 나선특별시, 평양에 있는 무역 거래 책임자의 경우에는 전자 메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sup>60)</sup>

북한 측 대방은 대외무역자격(와크)을 가진 무역상이며 이들은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 무역 거래를 진행한다.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위해 이들 무역상은 각 지역에 대표부를 설치, 운영하는데 이 중 단둥출장소가 가장 큰 규모이다. 단둥의 경우 북한의 많은 무역상이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서로 비밀리에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의 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는 것이다. 주로 북한 무역상, 가공 공장과 제3국의 외국 기업이 거래할 경우 이용되는 방식으로 북한에서 중국인 명의로 투자한 무역회사의 중국인 책임자가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을 제3국의 무역업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무역하는 방식이다. 북한과 금지 품목을 거래해오던 라오닝성의 홍샹그룹 또한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룹의 자회사는 물론 작은 무역회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필요시 목적에 맞게 그들을 이용해왔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홍샹그룹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제3국의 무역회사와 홍샹그룹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금지 품목을 수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해외투자국 1위가 버진아일랜드이며<sup>61)</sup>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 등 외국 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섬유(의류) 등의 임가공 분야에서 활용되는 계약방식이기도 하다.

---

59) KIEP 전문가 간담회, 2016. 11. 10.

60)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단둥시 무역업 종사자 인터뷰에서 단둥에 파견된 북한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나선 지역에서는 러시아 투자로 광케이블 공사가 진행 되고 있으며 2016년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함. 거래를 담당하는 북한 측 책임자들은 전자메일(QQ 중국계정 메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

61) 라오닝성통계연감(2015), 중국통계출판사.

북한 무역상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필요한 수량만큼만 주문한다. 이 때문에 급하게 주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 북한 대외무역상에서 1년 기간 계획된 수출입 품목과 수량을 정해주던 것과는 변화된 모습이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한 외화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무역상들에게 일정액의 외화(달러) 헌납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수행했을 경우 대외무역자격(와크)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 무역상들은 기존에 보유한 와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또는 새로운 와크를 배정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이 정한 헌납액을 바치고 있다고 한다.<sup>62)</sup> 이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지하경제의 신흥 세력인 돈주들이 무역 기업과 장마당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4. 물품 통관 및 대금결제 방식

### 가. 물품의 통관

북·중 무역의 통관 제도와 절차는 중국에서 다른 국가와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 중국 전역에서 운반되어 북한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건설 중장비류, 화물 등은 수출입 수속 자격을 갖춘 중국 측 무역상이 단둥, 옌벤주 등 세관에 지정된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원의 품목 검사가 끝난후 통상구를 통과해 국경을 건너게 된다. 외국에서 운반되어 단둥의 도로·철로를 이용하여 북한으로 수송되는 물자들은 일단 단둥 시내 소재 수출용 보세창고에 반입된다. 중국 측 수입자가 북한 측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보세창고까지의 운반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되며 보세창고에서 북측 당사자, 대리인 또는 위탁 받은 사람(많은 경우에 트럭 운전기사)에게 물품을 인도해주고 수출 수속을 한다. 보세창고에서 세관의 확인을 받고 문제가 없을 경우 컨테이너 및 밀폐식 화

62) KIEP 전문가 간담회, 2016. 11. 10, 북한 경공업성 전조선체코합영회사 사장.

물간에 봉인을 받는다. 단둥에서 중조우의교를 건너가기 전에 단둥 도로세관에서 수출품 검사를 받는데 봉인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서류 확인 절차만 시행하고 통관하게 된다. 철도를 이용한 수송은 현재 중국의 화물기차가 북한까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둥에서 북한 측 화물기차에 환적을 한다.<sup>63)</sup> 북한에서 수입되는 물품도 단둥에서 환적하여 단둥 세관의 수입 절차를 완료한 후 중국 국내로 운반된다. 단둥에서의 통관은 소규모의 수출입인 경우에는 수출입 당사자가 스스로 하지만 대부분 단둥 현지 통관대리업자에게 위탁해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북한에서 운반되는 무연탄·철광석 등 광물성 생산품은 지린성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부피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관계로 주로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다. 광물의 수출이 보세무역이 아닌 일반무역 통계로 집계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북한 광물성 생산품 수입은 단둥항의 경우 세계적인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만כן 르자오(日照)항 등 산둥성 지역의 항구와 랴오닝성 잉커우(營口)항으로 운반되어 하적된다.

수산물도 북한 동해 수역 수산물의 경우 나선 지역에서 가공되어 지린성 훈춘의 취안허(琿河) 세관을 통해 연변주로 운반된다. 북한 서해 수역 수산물의 경우에는 공해상에서 거래되어 단둥항으로 운반되어 하적된다. 이렇게 산둥성·랴오닝성으로 운반된 품목들은 하적 후 중국 전역에서 모인 중국업체에 판매되어 내수시장으로 풀리거나 가공을 통하여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품목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중국 화물 트럭이 평양까지 이동하여 물건을 하적하기에는 도로 상황, 숙박비용 문제 등 제반 환경이 적합하지 않아 일정 장소까지 운반하여 하적하게 되며 하적 장소에서 북한 각 지역에서 모인 도매상들이 구입하여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63) 전에는 중국 화물기차가 서평양까지 직통으로 연결되었음. 하지만 북한이 운송을 끝낸 중국 화물기차를 국내 수송에 전용하거나 국내 화물기차의 부품 보충을 위해 일부 부품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중국 화물기차의 연결이 중단되었음. 또한 북한 화물기차는 고속 주행 시 안전성이 낮고 중국의 고속화물 열차 운행 재개를 기다릴 수 없어 단둥까지 운행되고 있음.

지린성의 대표적인 훈춘시 취안허 통상구는 단둥 도로 통상구와 약간의 차별성을 보인다. 취안허 통상구를 통해 국경을 넘는 여행객과 화물차 종류에 따라 통관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으나 단둥 통상구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취안허 통상구의 경우 여행객은 오전, 승용차와 1톤 이하의 화물차로 거래를 하는 소규모 무역상들은 오전 10~12시, 대형 화물차의 경우 오후 1시 반 정도에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단둥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관광객과 화물차의 통과가 이루어진다.<sup>64)</sup>

취안허 통상구의 통관 절차를 살펴보면 출입국 심사와 동식물 검역 등의 과정에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북한 측 원정통상구 도착 후 역시 입국심사, 동식물 검역, 신분조회, 소지품 검사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 40분 정도가 걸린다. 수산물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현지 중국 무역상에 따르면<sup>65)</sup> 북한 측의 통과 제도 및 절차가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지고 있으며 특히 차량 출입국에 대한 통관이 예전보다 쉬워졌다고 한다. 예전의 경우 보따리 상인들이 봉고차에 화물을 싣고 원정통상구에 도착하면 규정에 따라 사람과 차를 분리하여 출국수속이 진행된다. 상인들은 외국인 통로에서 출국심사를 받고 차량은 운전기사가 운전하여 차량 전용 통로에서 입국심사를 받는데 예전에는 차량 검문이 많이 까다로웠으나 현재는 북한 측 검문요원들에게 뇌물(현금·담배 등)을 주면 쉽게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지린성 내 통상구는 대부분 2급 세관으로 규모가 크지 않으며 물동량 이동 또한 단둥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현재 지린성 내 통상구들의 통관 제도 및 절차는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예전에 비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지린성 내 통상구의 통관 제도 및 절차는 향후에도 계속 간소화, 간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 북한 측 검문요원들의 노골적인 뇌물 요구는 예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인바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64) 훈춘시 현지 관계자는 단둥 통상구, 취안허 통상구의 통관 시간은 정치적·계절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고 설명함.

65)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지린성 접경지역 현지조사, 2016년 8~11월.

## 나. 무역대금 결제 방식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대금 결제 방식은 북·중 경제 관계의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해왔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사회주의 국가 간 무역으로 국가 간 의정서 체결을 통한 청산결제 방식이었던 북·중 무역은 전환성 외화를 사용하는 결제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다만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변경 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이나 대형 기업들과의 거래와 달리 구상무역을 포함한 여러 형태로 존재해왔다.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의 무역대금 결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물품의 인도 장소가 단둥, 옌벤주 등 접경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납입주가 중국 남방이나 베이징 등 다른 지방에 있는 대규모 거래인 경우, 즉 북·중 국가 간 거래가 되는 규모의 거래는 원래 외화 송금을 비롯한 금융거래의 비중이 컸다.

둘째, 변경무역으로 거래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도 하지만 달러 등 외화를 포함한 위안화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으며 대북제재 전후를 모두 포함하여 주요 결제 방식이 되었다. 무역통계상 구상무역으로 집계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현물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셋째, 북·중 간 거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랴오닝성·지린성 등 접경지역 소재의 중소 규모 무역상의 경우 북한 측 대방과의 개인적 신뢰에 기초하여 일종의 신용거래를 허용해주는 경우도 많다.<sup>66)</sup>

2010년대에 들어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금융 분야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중 간 금융거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북·중 무역에 있어 미국 달러와 유로에서의 거래 비율이 감소하고 위안화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66) 대북 비즈니스를 확대시키자면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북측 대방의 사정을 고려하고 상대방에 대한 신용을 높이기 위해 제품을 먼저 인도하는 등 신용거래에 가까운 형태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대방과의 공존 공영을 도모하는 사례도 증가한다. 이러한 형태의 위험은 주로 중국 측 상인들이 부담한다. 만약 북측 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 측의 손해가 된다. 다만 다른 회사와의 경쟁도 있어 그러한 위험을 부담해도 거래를 확대하려고 하는 중국 측 사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종의 개별적인 신용이 제공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1) 금융거래

북·중 간의 대규모 거래, 특히 평양의 무역회사들과 중국의 남방이나 상하이, 베이징 등 북·중 접경지대가 아닌 지역과의 거래는 미국 달러에 의한 외화 결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다만 북한이 1970년대부터 대외채무(외채)의 상환이 밀려 있어 국가적 신용도가 낮음에 따라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신용장 거래는 북한의 외환 전문은행인 무역은행의 신용 등급이 낮아 무역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매입하는 은행이 없었다. 따라서 전부터 북한과의 무역 거래는 전신 송금을 이용한 선불 내지 후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 환전소이다. 예를 들어 단둥에 소재한 ‘은하무역’ 등 북한 특권기관의 무역회사가 일종의 환전소 역할을 담당한다. 중국 투자자가 석탄 결제대금을 지급할 경우 단둥 소재의 은하무역과 같은 환전소 역할을 하는 북한 특권기관에 입금하고 북한에서 돈을 찾도록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중국은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 형태를 근절하고 위안화를 무역대금 결제 수단으로 공식화하기 위해 2008년 2월 20일 국가외화관리총국에서 「지린성 대북한 변경무역 결제관리장정규정」을 발표하여 위안화(RMB)를 대북무역의 지불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변경무역 업체가 위안화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무역회사와 개인이 중국 경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변경무역 결제 전용 위안화 예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으며 중국 내 변경무역 업체에 한하여 수출로 인한 외화 현찰의 저금이 가능한 외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되는 핵실험으로 2013년 5월 중국 최대의 외환 취급 은행인 중국은행이 북한 금융기관과 환거래 계약을 정지하였다. 이 조치를 계기로 북한의 미 달러 결제가 큰 영향을 받았다. 단둥에 지점을 두고 있는 공상은행·중국은행 등 중국의 대표적인 은행들은 북한 국적의 사람이 개설한 계좌에 대한 동결, 북한으로의 송금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중국 베이징·단둥·훈춘 지역에 지점을 개설한 조선무역은행·광선은행 등과 같은 북한 은행 지점들은 실질적으로 예금·여신·외환 등 은행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대표부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앞에서 설명한 ‘환치기’ 역할을 담당하는 환전소 업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행으로 중국의 금융기관은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북·중 간 무역대금 결제 등 북한과 관련된 서비스를 모두 중단하였다. 또한 대북제재(2270호) 후 중국 정부는 중국 내 북한 은행을 모두 폐쇄하고 북한 은행의 중국 내 지점 신설, 중국 은행의 북한 내 지점 신설을 모두 금지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북·중 무역에서 대금결제는 대부분 달러나 위안화의 현금 결제, 현금과 현물이 결합된 결제, 자동차 등과 같은 고가의 현물 결제 방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중 무역의 대금결제에서 북한은 여전히 고립되고 폐쇄적인 후진적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에 대하여 북한은 ① 미 달러를 쓰지 않고 유로화나 북유럽의 통화, 심지어는 러시아 루블화를 이용한 결제 ② 위안화 현금 결제 ③ 중국 무역상 등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한 차명 거래 등의 방법으로 무역대금 결제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67)</sup>

## 2) 현금 거래

현금 거래는 전에도 비교적 금액이 작은 거래에는 많이 사용되어 왔다. 무역대금을 인민폐나 미 달러, 유로 등 전환성 외화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의 문제점은 거래의 안정성에 있어 부담이 크고 중국의 부가가치세 환불 등 무역 거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 당사자 간에 거래의 초기, 신뢰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을 경우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단둥과 지린성 접경지역의 현금 거래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단둥의 경우

67)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라오닝성 단둥시, 2016년 4~9월, 외국 송금 취급의 실무에서는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국과 인접하는 지역에 대한 전신 송금을 할 때 수취인이 제재대상국의 법인이나 자연인이 아닌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중국의 경우 라오닝성의 단둥, 다롄과 지린성의 옌지, 훈춘 등은 이러한 확인의 대상이 되고 있음.

적은 금액의 경우에는 위안화로 거래하나 금액이 클 경우 단위가 높은 달러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지린성 대북무역에서 주요 결제에는 위안화가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은 주로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지 무역상 중에서는 출입국 때마다 거액의 현찰(지린성 지역에서는 주로 위안화)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sup>68)</sup> 또한 대북제재 후 북한의 외환 급감으로 무역대금 체불 현상이 나타나자 중국의 대북무역상들은 더욱 현금 거래를 고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훈춘 취안허 통상구를 거쳐 나진으로부터 해산물 등을 변경무역 형태로 보따리 장사하는 중국 상인 대부분은 현금 거래를 하고 있다. 이는 훈춘-나진 간 하루 일정의 왕래가 많아 위안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중국 위안화를 찾아 미국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데 달러가 많이 부족해진 관계로 은행과 암시장 간 환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현물 거래

현물 거래는 일종의 구상무역이라 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해서 수출입 물자로 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다만 하나의 무역 계약에서 수출입대금의 금액이 일치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물 거래의 한 변형으로 주로 중국측 당사자가 신용을 제공하면서 일정한 기한에 수출입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현물 거래가 이루어진다.

대북 금융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 측 당사자의 사실상의 신용 제공과 현물 거래에 따른 청산이라는 방식은 향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특수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북한은 라오닝성, 특히 단둥시를 매우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해나갈 것이다.

현물 거래 방식은 현재 지린성 내 대북 무역에서 주요 결제방식이다. 예전에는 주로 변경민들 사이의 소규모 현물 거래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대북제재 후

68)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엠벤처 무역중사자 인터뷰, 2016년 4~9월.

일반무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린성 지안 지역에서는 맞은편 북한 만포 지역에서 주로 목재와 농특산품(인삼 등)을 수입하는데, 예전에는 현금 거래 위주로 하다가 현재는 북한 측의 외환 부족 등으로 현물 거래를 많이 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목재량만큼 북한 측에서 요구하는 품목들을 구입하여 보내 맞추는 거래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노동력의 중국 파견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임금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거나 북한 노동자의 임금을 북한 측에서 요구하는 물품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 제4장 |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밀무역 현황

북·중 밀무역은 접경지역에서의 중요한 교역 방식임에도 그간 심층적인 연구보다 언론매체 기사 형태의 단발성 동향 보고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는 ‘밀무역(혹은 밀수)’이라는 불법적 교역 방식이 갖는 특수한 성격에 따라 언론 기사의 단골 소재로 활용하기 좋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역으로 극히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교역 방식이기에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는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밀무역이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중요한 교역 방식이고 이를 보완할 경우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거래관행을 한층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밀무역 현황, 구조, 주요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밀무역의 성격상 전체 규모를 추정한다거나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유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므로 이 연구는 정량적인 분석보다는 기존의 문헌과 언론 기사, 현지조사,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 정성적인 방법으로 밀무역의 현황을 유추하여 체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1. 북·중 밀무역의 역사<sup>69)</sup>

중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종전, 1960년대 거듭된 자연재해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 지역은 상태가 더욱 심했다. 가정마다 식량이 없어 배를 굶주리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을 정도로 빈곤한

69) 中国南方周末(2010. 7. 1), 저자 번역 재구성. <http://www.infzm.com/content/47023>(검색일: 2016. 10. 13).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북한은 상황이 달랐다. 단동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장년층은 집안에 값어치라도 나가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강을 건너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쌀과 바꿔오던 일이 비밀비재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북한 주민들은 매우 인심이 좋아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바꿀 만한 물건 없이 북한으로 넘어가도 먹을 것을 챙겨주고 쌀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자연재해로 기아자가 속출하였고 북한은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지원받은 식량으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강 건너 중국 측 주민들과의 거래를 통해 스스로 식량을 마련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주로 구리폐광 등에서 구리광석 또는 구리조각을 수집하여 압록강을 건너와 단동 지역의 주민과 구리 증량만큼의 식량을 거래했다. 접경 지역에서 민간 최초로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은 세계적 수준의 동(銅)광 산지이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얼마나 많은 구리가 밀수를 통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과 교환하기 위해 폐광산, 고철을 사방으로 찾아다녔고 심지어 강 주변에 건설된 공장의 철제 외벽을 뜯어서 달아나는 상황도 다반사였다. 그 당시 단동에는 주민들이 쌀과 교환한 폐금속을 사들여 중국 내에 폐금속을 공급하는 회사까지 등장하기도 하였다.

단동 접경지역 마을에서는 1990년만 하더라도 쌀 25kg만 주면 북한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올 수 있다는 말들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여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단속으로 인한 북송 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단동의 산간마을에서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살아야 했다. 그 당시 압록강 북·중 접경지역에는 철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겨울철에 압록강이 얼면 중국 아이들은 썰매를 타다가 북쪽에 가면 북한 군인이 사탕을 주기도 하였다. 그만큼 접경지역 주민 간 왕래가 빈번하였으며 별다른 통제는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북·중 간 밀무역의 시작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강을 건너고 물물 교환을 하던 시기부터라고 볼 수 있다. 굶주림을 달래기 위해 강을 건너 시작된 물물교환을 불법적인 밀수로 봐야 할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물물교환이 세월이 지나 현재에 이르면서 연민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밀무역으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밀무역이 성행하던 곳은 랴오닝성 단둥의 사허쯔(沙河子, 지금의 단둥시 중심), 지우렌청(九連城), 랑터우(浪頭) 지역이며 지린성의 경우 룡징(龍井), 허룽(和龍), 창바이(長白) 지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역사적으로 북·중 간 민간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지역이기도 하였다.

사허쯔(沙河子)는 일찍이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육로 창구 역할을 하던 민간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이 지역에서 밀무역은 흔하게 목격되는 현상이었다.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시기 일본 정부는 조선의 부랑자들에게 밀무역에 종사하게 하여 일본이 필요한 정보와 물품을 조달하였다. 이 시기 사허쯔는 극동 지역의 유명한 밀무역 장소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였다.

사허쯔에서 압록강 상류 지역으로 20km 떨어진 지점에는 구렌청(九連城)진이라는 곳이 있다. 명나라 희종(熹宗) 시대 조선과 정기적으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던 지역으로 민간 밀무역이 성행하여 엄격하게 밀무역을 단속하던 곳이기도 하였다. 이곳은 강수량이 적은 건기에는 도보로 국경을 건너기에 매우 용이하여 밀무역 거래를 하기에는 적합한 지역이었다.

사허쯔에서 압록강 하류(남쪽)로 8km 떨어진 량토우(浪頭)진이란 곳이 있다. 이곳에서 지역 주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량토우 순춘촌 촌민인 것으로 밝혀졌고 중국 외교부는 중국 측 주민이 '불법 월경 변경무역활동(밀무역)' 과정에서 북한 군인이 총격을 가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압록강변의 밀수가 잠시 중단되며 자취를 감추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린성의 경우 북한과 1,200km의 접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산간 지역과 두만강의 내수 지역으로 나뉜다. 하지만 산간 지역이라는 위치적 제한성으로 특히 연변 지역의 대북한 밀무역의 역사는 20세기 1980~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당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묵인과 세관의 눈감아주기로 대량의 일본제 중고 승용차가 북한을 통해 연변 지역에 밀반입되어 중국 시장에 유통되었다. 밀무역 방식으로는 두만강의 수심이 얇은 점을 이용하거나 겨울철 얼음판 위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오는 형태이며 결제는 미 달러로 현금 결제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1990년대 말 들어 중앙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관련자 처벌로 중고 승용차 밀무역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지만 대신 소량, 소부피 물품의 밀무역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4-1. 북·중 접경지역 초기 민간무역 및 밀무역 성행 지역(랴오닝성)



자료: GoogleEarth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 북·중 접경지역 초기 민간무역 및 밀무역 성행 지역(지린성)



자료: GoogleEarth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2000년대 이후 밀무역의 발전 현황 및 지역 분석

최근의 북·중 접경지대에서의 밀무역의 변화 양상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중국은 전반적으로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둔다. 중국은 북·중 접경지대뿐만 아니라 미얀마와 라오스·베트남과의 국경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국경 관리는 2003년 9월에 국경 경비 담당이 무장경찰 부대에서 인민해방군 부대로 이관된 후 많이 엄격해졌다. 당시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에서는 미얀마 국경의 관리도 인민해방군으로 이관되었다고 밝혔다.<sup>70)</sup> 남방의 국경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비공식적인 왕래는 지금도 어느 정도 묵인되고 있는 것 같다.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왕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다.

단동 지역 무역 관계자, 단동 장년층 주민 등은 2000~06년을 북·중 밀무역이 전례없이 가장 왕성한 시기였다고 한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는 동안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서 불리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 북한과 중국 간 경제 발전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밀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갔다.

민간무역 형태로 진행되던 밀무역은 시간이 지나고 북·중 간 경제 발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규모화·조직화되어 갔다.<sup>71)</sup> 본격적인 북·중 밀무역은 시기적으로 크게 3단계에 걸쳐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활성화 초기 단계인 1990년대에는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통제가 느슨한 접경지역에서

70) 富田圭一郎(2006), p. 4.

71)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단동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1998년 북한에서 들어오던 ‘555, Hilton’ 등 외국 담배 847박스, 약 300만 위안 상당의 밀무역 거래 적발, 2002년 단동 기차역에서 불법으로 북한으로 반입되던 30톤의 수소나트륨 적발, 2004년 겨울 북한에서 들어오던 마리화나 13,775알 적발 및 4명 체포. 상기 마약 밀수는 단동 변방부대 설립 이후 가장 큰 마약밀수 단속 건수라고 설명함. 이처럼 밀수 규모가 큰 것은 밀무역이 상당히 조직화·체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소형 선박을 이용한 수산물, 생필품 등의 밀수가 확대되었다. 가령 북한의 구리, 고철, 공장설비, 해산물, 토산물, 골동품 등과 중국의 곡식과 일용품에 대해 현물 혹은 현금 거래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리적인 특성상 당시부터 단둥과 신의주 지역은 최대 밀무역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2000년대 이후 북·중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밀무역 역시 한층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민생 목적의 밀무역이 주종이었다면 2000년대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북한에서도 대중국 교역량이 확대되면서 밀무역 역시 분화되었다. 소위 이익이 크게 남는 광물자원에서부터 위조지폐, 마약까지 금지 품목에 대한 밀무역이 생겨났고 밀무역 주체들 역시 보다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대형 무역집단이 나타났다. 또한 북한 내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중국산 밀수품이 북한 장마당에 확산되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밀무역이 한층 조직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 내 변경 무역제도가 정비되고, 관리감독이 보다 체계화되고, 관련 인프라가 정비됨에 따라 대규모 밀무역은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밀무역이 상당히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였으나 2011년 3차 핵실험 이후 제재가 한층 강화되면서 더욱 은밀해진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측 단둥의 대형 무역회사들과 지역 조직폭력배, 변방부대, 북한 측의 군부,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종의 조직적인 밀무역 형태로 성숙된 것으로 판단된다(표 4-1 참고).<sup>72)</sup> 아울러 북한 장마당이 북한 내의 주요한 경제활동 방식으로 안착함에 따라 밀수가 북한 장마당과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판단된다.<sup>73)</sup>

---

72) 노동연구원(2012), p. 204.

73) 이석기, 양문수, 정은이(2015), pp. 44~45.

표 4-1.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밀무역의 발전 단계 및 특징

단계	형성기	성장기	성숙기
시기	19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2010년대 초반 현재
특징	경제난 가중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생계형 밀무역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이익수취형 밀무역	제재 및 통제 강화에 따른 조직적 이익수취형 밀무역
주요 품목	농수산물, 식품, 생필품 등	전방위 상품(식품, 일용품, 광물자원, 금지 상품)	

자료: 본문 내용 정리하여 저자 작성.

2000년대 이후 거래 품목을 살펴보면 북한은 세계 각국에서 수집해온 담배, 중고 자동차와 북한산 마약, 동(銅), 특산물, 한약재<sup>74)</sup> 등을 압록강 지하시장을 통해 중국 신흥 소비시장으로 유입시켰다. 또한 중국에서는 초기 식용유로 거래되던 품목은 빨래세제, 비누, 건전지, 라면 등의 경공업 제품, 해적판 DVD 등으로 다양해졌다. 중국 측 밀수업자들은 이용 품목을 모두 야간에 소형 어선으로 북한에 옮겨지면서 북한 측 인수자와 핸드폰 통화로 접선 지역을 정하고<sup>75)</sup> 배가 보이면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내 물건을 주고 받는다. 2005년 북한은 밀수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문건을 하달하였는데, 밀수 단속이 아니라 변경지역에서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sup>76)</sup>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물물교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2006년 10월 중국은 압록강 및 북·중 접경지역 국경에 철책선을 세웠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중 국경 간 철책선은 북한의 1차

74) 특히 북한산 마(麻)는 효력이 좋기로 유명한 한약재로 북한에서 톤당 3,000 위안 정도 하는데, 중국에 들어오면 톤당 5,000 위안에 거래됨. 밀수되는 북한산 한약재의 증가로 2005년 단둥 세관은 압록강 유역에서 한약재 밀수를 집중 단속하여 100톤가량의 한약재를 압수하기도 함.

75) KIEP 전문가 간담회, 2016. 11. 10, 북·중 접경지역(북한 측)에서는 중국 이동통신 회사의 신호 수신이 가능하여 중국 핸드폰으로 통화가 가능함.

76) *Ibid.*

핵심협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양국 무역 종사자들은 철책선 건설은 북·중 밀무역을 통제하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철책선은 약 2m 높이며 중간중간에 있는 안내판에는 '사진 촬영 금지, 북한 쪽 사진 촬영 금지, 북한 국경으로 물물교환 금지(물건 투척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06년 중국은 UNSC의 사치품에 대한 북한 수출 금지 결의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북한으로 수출하는 화물과 송금에 대한 통제를 하였다. 당시 중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옥수수과 쌀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 19%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단둥 지역에서는 옥수수와 쌀의 밀거래가 갑자기 늘어났다.

2009년 8월 단둥시 정부는 '단둥시 변경소액무역 수상 운수선박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변경소액무역에 운용되는 선박에 대하여 운반되는 구체적인 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국의 정상적인 물물교환 요구를 만족시키고 밀무역을 단절한다는 취지였으나, 현재도 공해상에서는 공공연하게 양국 선박 간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다.

북·중 밀무역이 조직화·규모화·체계화되면서 밀무역의 지역과 형태가 예전과는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지역에서는 현재도 소규모로 밀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규모의 밀무역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방식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북·중 무역에서 밀무역이라는 것은<sup>77)</sup> ① 정식 무역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세관신고와 다른 물품의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형태 ② 비공식적인 통로를 거쳐 물품을 수출입하는 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은 정식 무역과 외면적인 모습은 동일하다. 하지만 세관신고서에 쓰인 품목과 함께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포함시켜 운반한다. ②는 주로 내수면(강·호수 등) 또는 바다(공해)에서 밀수 선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해상에서는 정식 무역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하여 정식 해상 통로를 통행하면서 밀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외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국경을 가르는 강 폭이 좁은 지역에서 야간에

77)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랴오닝성 단둥, 2016년 4~9월.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오가며 밀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sup>78)</sup> 다만 이러한 왕래는 법적으로는 불법이고 밀무역에 속하지만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접경지역에서 중국 건국 초기 전부터 계속 이루어져온 생활 관행으로 눈감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로 ①과 ②와 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밀무역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임수호(2008)<sup>79)</sup>는 밀무역 방식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중고 자동차 판매를 주로 하는 되거리(전매)무역 방식이다. 둘째, 북·중 접경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물물교환 방식이다. 셋째, 북한 상인의 인편에 의한 중국 제품 밀수 방식이다(표 4-2 참고).

일본 중고 자동차의 되거리무역 방식은 일본의 대북제재 강화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물교환과 북한, 중국 인사에 의한 인편 전달 방식은 현재도 왕성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중국, 북한 측의 무역회사, 변방부대 및 중국 조직폭력배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중형 규모의 밀수 역시 추가해볼 수 있다.

표 4-2. 접경지역에서의 밀무역 주요 방식

무역 방식	물물교환	인편 밀수	조직적 밀수
주요 상품	북한: 유색금속, 약재 중국: 식량, 생필품	식품, 일용품, 소규모 금지품목 등	북한산 광물자원(금지품목), 중국 측 전략물자(금지품목) 등 전방위 품목

78) 이러한 행위는 중국의 국경지역에 가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으로 특별히 북·중 국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님. 이 같은 현상은 광서성 장족자치구와 운남성의 중국-베트남 국경지대, 운남서의 중국-미얀마 국경 지대, 중국-라오스 국경지역에 가면 흔한 일임. 중국 국경에서 비공식적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는 지역은 4,000km에 이르는 중국과 구소련 국가들(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과의 국경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도 국경이다. 북·중 접경지대는 1990년대 중반 북한 경제가 악화되어 많은 북한 주민이 중국에 유입되면서 한국에서 탈북자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많은 언론 보도로 이어지면서 엄격하게 됨.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옌지나 투먼에 북한에서 넘어온 많은 ‘꽃재비’가 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국경지역 주민에 대한 국경 관리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지 않았음.

79) 임수호(2008), pp. 118~122.

표 4-2. 계속

무역 방식	물물교환	인편 밀수	조직적 밀수
세부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유색금속, 약재 등을 중국의 식량, 생필품 등과 교환하는 방식</li> <li>· 북한 주요 수출품: 주식, 구래, 약재, 인삼, 수산물, 수렵물</li> <li>· 중국 주요 수출품: 쌀, 밀가루, 담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적 형태의 보따리 무역</li> <li>· 개인 혹은 소규모 단체 간의 소규모 밀무역, 국경경비대가 묵인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규모 밀무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물교환과 인편 밀무역이 확대 발전된 방식으로 북·중 양측의 무역회사, 변방 부대, 조직폭력배 등의 조직적 개입</li> </ul>
현황	현재는 생필품, 전자제품, 일용품 등으로 확대되어 왕성하게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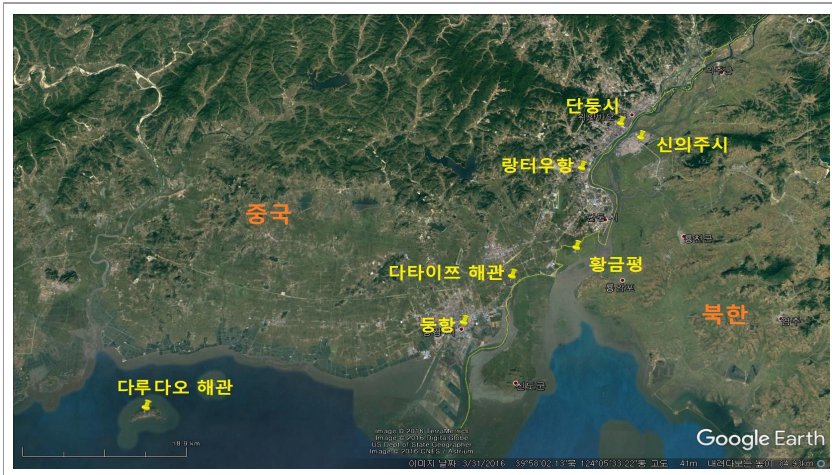
자료: 임수호(2008), pp. 118-122 및 최근 동향 추가하여 저자 작성.

북·중 간 밀무역의 형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수량적, 국가안보적으로 ①의 정식 무역의 형태를 취한 밀수 행위이다.<sup>80)</sup> 라오닝성의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단둥 시내의 중조우의교를(철도(단둥철도세관), 도로(단둥도로세관)) 통과하는 물류 통로가 주류이며, 그 외에는 단둥지구에 있는 2급 세관을 통과하는 육상(타이핑완 및 창디엔허커우 세관은 원래 내수면이지만 타이핑완댐의 보행 통로를 이용), 내수면(야바거우, 창덴허커우, 다타이쯔) 및 해상(다루다오) 통로가 있다. 그중 야바거우는 수풍댐 상류에 있는 수풍호에 위치하며 창디엔허커우는 타이핑완댐의 상류에 있는 호수에 위치한다. 다타이쯔는 압록강 하류에 위치하는 북한 평안북도 용천군과 압록강 본류로 분리되어 있는 평안북도 신도군에 속하는 신도에 건너편에 위치하며 북·중 간 육지를 가르는 강폭은 약 170m이다. 다루다오는 서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6.6km<sup>2</sup>, 인구 약 3,000명의 섬으로 섬 앞바다에서 중국 국적 선박의 해산물 수출을 위한 해상 화물 환적지이다.

80) 「涉助朝鲜核计划-中国丹东鸿祥实业被美韩智库点名」(2016. 9. 20), BBC中文网, [http://www.bbc.com/zhongwen/simp/business/2016/09/160920\\_north\\_korea\\_china\\_sanction](http://www.bbc.com/zhongwen/simp/business/2016/09/160920_north_korea_china_sanction)(검색일: 2016. 11. 2).

[그림 4-3]을 보면 압록강 하구에서 중국과 북한의 영토가 매우 근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압록강은 북·중 간의 협정으로 상륙하지 않는 한, 양국 선박은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 중국 국내를 왕래하는 선박이 만약 중국 측에서 북한 측 강변에 접근하고 짐을 내리면 앞서 ②번 형태로 지척한 밀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내수면에서 쓰이는 선박은 주로 어선으로 한척의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은 1~10톤 안팎으로 추정된다.<sup>81)</sup>

그림 4-3. 압록강 하구



자료: GoogleEarth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4]는 대대자 세관 부근의 지형이다. 압록강 상류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중 간 영토가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물품을 신고 출발한 선박은 압록강 본류를 건너 용천군에 있는 북측 부두로 건너가 밀무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82)</sup>

81)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라오닝성 단둥, 2016년 4~9월.

82) *ibid.*

그림 4-4. 대대자 세관 부근의 지형



자료: GoogleEarth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일제강점기 구만주와 일본 식민지인 조선의 국경이 되고 있던 압록강에 건설된 수풍댐은 해방이 되면서 북한이 인수해 운영해 왔으며 6.25 전쟁으로 발전시설의 70%가량이 파괴되고 정전 이후 소련의 원조로 복구되면서 북한과 중국을 경계로 한 압록강 수계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공동 관리, 운영하고 있다. 생산된 전력은 북한과 중국에 1/2씩 송전하고 있다. 수풍댐 상류는 호수가 형성되어 수풍호라 불리며 중국의 2급 세관인 아바거우 세관이 있다. 이 세관은 수풍호의 내수면 운수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된 세관이며 현재에도 중국 측뿐만 아니라 북한 측에도 몇 개의 작은 부두와 부동 부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4-5 참고).

이러한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정규 무역을 위해 건설된 것이지만 인구가 적고 눈에 띄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무역에 대한 감독도 단둥 시내처럼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원래 이 세관은 북한에서 목재를 수입하기 위해 개설된 것인데<sup>83)</sup> 북한의 외화 사정이 좋지 않아 북한산 목재와 수입담배를 수입하고

83) 『中国口岸年鉴』(2002), p. 236.

중국에서 화학비료나 식량, 비료, 생활필수품 등을 수출하는 구상무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압록강 유역에서 모터보트·유람선을 운영하여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밀무역에 관여하는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그림 4-5. 수풍댐



자료: GoogleEarth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6]은 단동시에서 압록강 상류로 약 20km 정도 올라간 지점이며 단동시의 관광지인 후산창청(虎山长城) 부근에 있는 북·중 국경의 모습이다. 일제강점기 일본과 구만주국 사이 국경 확정을 했을 당시 압록강에 있는 섬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일본령으로 되었다. 해방 후에도 국경선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의 강물이 없는 섬 지역까지 북한령이 되고 있다. 이 지역은 강폭이 1m도 안 되기 때문에 국경 간 철책이 건설되기 전 인근의 북중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 등의 소규모 밀무역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국경 철책이 세워지면서 북한 땅을 쉽게 볼 수 있는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4-6. 후산창청 부근의 북·중 접경지역



자료: GoogleEarth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3. 북·중 밀무역의 주요 특징

북·중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밀무역은 지역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이다. 낙후된 경제로 단둥 지역민들은 공식 경제뿐만 아니라 밀무역 등 지하경제 혹은 비공식 경제에도 함께 참여하여 추가 소득을 확보할 유인이 높다는 점이다. 압록강 하구의 밀무역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압록강 주변의 어로 활동을 하는 어민부터 무역상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압록강 중상류 및 단둥시 외곽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수풍호, 태평만담 등에서 소형 어선을 활용하여 소규모의 밀무역을 통해 소득을 충당하고 있다.<sup>84)</sup> 또한 압록강

84) 현지조사 시 지역 거주민이 스텝없이 밀수 지역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아 다수의 지역주민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증상류의 수풍호와 압록강 중하류에서 모터보트나 유람선을 이용한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상인들 역시 소형 선박을 활용하여 소규모 밀무역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밀무역은 위험이 크에도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폭력 조직과 해당 변방부대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설명이다.<sup>85)</sup> 이는 다른 의미로는 단둥이 공식 경제보다 이러한 지하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둘째,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오는 관행이다.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북·중 교역에 종사해온 까닭에 밀무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역사를 공유해온 사회문화적 유대이다. 단둥과 연변주는 일제 침략기와 한국전쟁 등의 역사를 공유해왔다. 이렇게 쌓인 사회문화적 유대는 작금의 경제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중 양국의 공무원, 지역주민 간 교류로 깊은 사회문화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넷째, 북·중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고 밀무역이 관행화되어 단속이 있어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는 것이다.<sup>86)</sup>

다섯째, 라오닝성 단둥과 연변주 소재의 북·중 통상구 지역은 단순한 경제 협력의 통로를 넘어 지리적·전략적 중요 요충지라는 점이다. 지린성 창바이현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 정부는 창바이 지역의 인구 공동화로 북한의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 중국까지 확대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창바이현 주민들의 경제 생활 보장 측면에서 밀무역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 내지에 위치해 외지와 고립되어 있고 특산물을 제외하고는 딱히 다른 소득 수단이 없기에 다수의 지역민이 밀무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sup>87)</sup> 이는 지린성의 북중 통상구가 대부분 산간지역에

85)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2016년 4~9월.

86) 김영수(2006), p. 57.

87) 외지인의 방문이 거의 없고, 다수의 주민이 북한과의 밀무역에 깊게 관여하고 있어 외지인의 방문과 접근을 꺼린다고 함. 방문시 주의 요망.

있음을 감안할 때 창바이현 외 다른 지역의 통상구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추측된다. 창바이현에는 북한 정보요원들이 대거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곧 북·중간 중요한 물자 교역 루트이고, 특히 북한 측의 핵심 군수공업 배후지인 양강도가 접하고 있음을 염두에 둘 때 중요한 전략물자의 밀무역 루트로 추론할 수 있다.<sup>88)</sup>

북·중 접경지역의 밀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북한 내 장마당의 활성화이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확대된 북한의 시장·장마당이 확산됨에 따라 중국산 상품의 유입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밀무역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곤궁함을 해결하는 소득원으로서 차들이꾼·달리기꾼 등 북한 내 밀무역 중개 역할이 하나의 직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의 시장화와 주민들의 경제적 곤궁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밀무역은 한층 체계화·공고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밀무역이 오랜 기간에 형성되어 관행화되어 있고 중·조 친선이라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닌 압록강 유역, 두만강 유역 인근의 주민 간 사회문화적 유대감 속에 주민들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울러 북한의 장마당이 북한 경제 시스템에 뚜렷이 자리 잡으면서 밀무역을 통한 중국산 상품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한 북·중 밀무역을 단속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중앙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무역 단속에 대한 집행의지를 보이면서 시행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결국에는 보여주기식의 단속으로 끝나고 말았다.

---

88) 창바이현에서는 밀수와 관련된 특수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나 사건의 배경과 원인이 밝혀지기 보다는 대외적으로 북한 군인의 총격전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음. 주목할 점은 중국이 암묵적으로 용인한다는 것은 북한이 들여오는 전략물자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만약 군사 관련 물자가 왕래하는 걸 파악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깊게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음.

## 4. 대북제재 이후 북·중 밀무역의 동향

2015년의 제3차 핵실험, 2016년의 제4차 핵실험으로 UNSC의 대북제재 결의가 강화되었고 북한을 본격적으로 봉쇄하지 않은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졌다. 현재 중국은 최근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4월과 6월<sup>89)</sup>의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품목 발표와 접경지역에서 북한 고위 관료 밀수 혐의로 체포,<sup>90)</sup> 홍상(홍상)그룹 조사 및 관계자 체포<sup>91)</sup> 등이 바로 그것이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주민들의 비공식적인 경제 행위를 어느 정도 허용해오던 것을 2016년 2/4분기부터 단속을 강화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92)</sup>

하지만 이러한 단속이나 조치에도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여전히 밀무역이 성행하는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식 무역의 형태로 수출입하는 품목에 다른 품목을 포함시켜 거래를 하는 경우, 중국세관의 전수검사 시행 정책이 실시되지 않는 한 적발하기 어려울뿐더러 중국 당국 스스로 엄격한 통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대북제재에는 적극 동참하지만 ‘민생 목적의 교역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밀무역을 단속하는 것은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단둥 도로 통상구에서는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무연탄과 철광석을 실은 화물차들이 여전히 활발히 오가고 있다. 이렇게 거래되는 광물자원이 민생 목적이라고 한다면 제재할 수 있는 근

89) 연합뉴스(2016. 4. 5), 「중국 광물 수출입금지에 북한 외화벌이 타격 클 듯」,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5/0200000000AKR20160405183800097.HTML?input=1195m> (검색일: 2016. 10. 5).

90) 연합뉴스(2016. 6. 12), 「中, 단둥주채 北공작원 구속, 53억원 압수...금지물품 밀수 관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2/0200000000AKR20160612010400073.HTML?input=1195m> (검색일: 2016. 10. 5).

91) 중앙일보(2016. 9. 19), 「北기업, 유령회사 세워 교묘히 무역제재 피해가」 외 다수, <http://news.joins.com/article/20606657>(검색일: 2016. 10. 6).

92) 북·중 무역종사자들에 따르면, 2016년 2/4분기부터 비공식 경제 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교육이 시작되고 3/4분기부터는 단속이 심해졌다고 함.

거는 사라져버린다. 금광석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아연광이 한때 273%라는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금광석 역시 거래 금지 품목이지만 연·아연·은 등은 거래 금지 품목이 아니다. 따라서 무역업자들은 연·아연·은에 금광석을 섞어서 들여온다. 금광석을 수입해 올 수 없는 만큼 그만큼의 물량을 늘려 금광석을 섞어서 들여오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해관에 적발되지 않는다. 또한 북·중 접경지역에서 최대의 밀무역 지역인 압록강 하구와 공해상에서는 중소 규모의 선박을 이용하여 배와 배를 맞대어 거래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화물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둥 신구(新区) 지역 인근부터 다동항(大东港)과 압록강 하구까지 작은 부두들에서 중소형 어선들을 이용하여 생필품 등 품목들의 밀무역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둥 지역에서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무역 규모가 크다. 해관이나 검역국의 감독권에서 벗어나 오직 변방부대의 감시만을 받고 있는 까닭에 관리감독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느슨하다는 점 역시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내륙 밀무역 중심지인 창바이조선족자치주(长白朝鲜族自治县)의 경우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의 군수 공업이 집중된 양강도·자강도와 맞닿아 있으며 도로 통상구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전략물자 거래에 최상의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옌벤 지역의 대북무역 관계자에 따르면<sup>93)</sup> 창바이 통상구 인근에는 많은 중국 무역상이 있는데 대부분 중국 대기업의 자회사이다. 모두 북한에서 투자하여 중국인 명의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이며 40여 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창바이현은 북·중 간 거리가 가까워 왕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장백 통상구는 백두산 내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국가 1급 통상구이고 장백 맞은편은 혜산이다. 밀무역 방식은 주로 ① 주요 물자를 수심이 얇고 육지가 인접한 곳에서 흘려보내고 이를 받는 방식 ② 다리 위로 물자를 보내고 다리 밑에서 현금 거래를 하는 방식 ③ 가까운 거리는 던져서 보내는 방식으로 이 외에도

93)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지린성 옌벤주 무역중사자 인터뷰, 2016년 4~9월.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된다고 한다. 주교역품은 북한의 대중 수출품에는 일용품, 희귀금속 등 광물자원, 마약 등 금지 품목도 포함되고 북한의 대중 수입품에는 전략물자, 금지 품목 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2270호) 시행에도 북한 내 장마당은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북한 주민의 실생활과 연결된 식량 등 장마당 주요 거래 품목의 물가가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중 간에 이루어지는 밀무역이 원활한 상품 공급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상구(口岸, 중국명 커우안)는 중국과 외국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중요 통관 시설이다. 물동량을 운송하는 교통 수단에 따라 도로, 철로, 항구, 관로(파이프), 공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 특정 지역에 도로, 철로, 항구 통상구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 통상구의 경우 대다수가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위치하고 있다. 랴오닝성에는 북·중 교역의 대표적 통상구인 단둥 통상구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도로, 철로, 항구, 관로(파이프) 통상구가 있다. 지린성의 북·중 통상구는 철로와 도로 통상구 2개의 유형으로 지안(集安), 취안허(圈河), 투먼(图们), 썬허(三合), 카이산툰(开山屯), 난핑(南坪), 구청리(古城里), 창바이(长白), 린장(临江) 등 9개의 통상구가 있다.<sup>94)</sup> 이들 통상구는 중국해관(세관)과 변방부대의 통제를 받으며 랴오닝성의 국경 통상구는 성의 상급 세관인 다렌·선양 해관에서, 지린성의 국경 통상구는 창춘 해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다수의 통상구 시설이 일제식민 시대 혹은 신중국 건립 시기에 비준을 받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1. 북·중 통상구 개황

통상구	위치	비준연도	등급	북한 측 통상구	통상구 유형			비고
					도로	철로	항구	
단둥	랴오닝성 단둥시	1954 (도로, 철로) 1988 (항구)	국가 1급	신의주	●	●	●	신통상구 건설 완료, 미개통

94) 최장호 외(2016).

표 5-1. 계속

통상구	위치	비준연도	등급	북한 측 통상구	통상구 유형			비고
					도로	철로	항구	
지안	지린성 통화시 지안시	1954	국가 1급	만포		●		도로통상구 건설중
취안허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훈춘시	2001.10	국가 1급	원정	●			도로통상구 개통
사튀쯔		1985		새별	●			
투먼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투먼시	1941 (도로) 1954 (철로)	국가 1급	남양	●	●		
싼허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룽징시	1941	국가 1급	회령	●			
카이산툰		1933	국가 2급	삼봉	●			
난핑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허릉시	1951	국가 2급	무산	●			
구청리		1953	국가 2급	삼장	●			
창바이	지린성 바이산시 창바이조선족자치현	1950	국가 1급	해산	●			
린장	지린성 바이산시 린장시	1950	국가 2급	중강	●			

주: 단둥 통상구는 세부 유형으로 관로(파이프) 통상구도 운영하고 있음.  
 자료: 중국통상구연감(中國口岸年鑑)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 연구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중 국경 통상구를 분석하기에 앞서 몇 가지 사안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북·중 국경 통상구 교역이 북·중 공식 교역의 전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차적으로 북한의 광물자원이 산동성, 저장성 및 기타 남방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고 중국 타 지역의 항구 통상구에서 북한의 남포항 등 해상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평양-베이징의 항공편, 나선-상하이, 닝보 등 남방으로 가는 다른 교역 방식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 북·중 국경 통상구 교역은 북·중 전체 교역의 일부에 불과하다. 둘째, 선양, 창춘, 옌지 등 랴오닝성, 지린성 주요 도시의 공항 통상구가 있긴 하

나 이들 통상구가 반드시 대북교역 통로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통상구 분석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의 경우 상품 품목 분류가 안 되어 있고 단순 상품 교역량, 유동 인원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넷째, 일부 지방급 통상구 중 확인이 불분명한 지역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가령 압록강 중류의 단지, 태평만, 백두산 기슭의 쌍무봉 지역 등은 문헌으로는 확인이 되나 현지조사 시 확인이 어려웠다. 아울러 이 연구는 중국 해관에서 매년 발행하는 『통상구연감(口岸年鉴)』(2012~15)을 참고하였는데 이 문헌에서는 영세한 규모의 지방급 통상구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sup>95)</sup>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중국과 북한의 접경을 오가는 상품과 인원들이 통상구를 경유함에 따라 북·중 국경 통상구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북·중 거래의 성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1. 접경지역 통상구의 수출입 동향

우선 지역별로 지린성의 투먼, 사튀쯔, 취안허, 썬허, 카이산툰, 난핑, 린장, 창바이, 구청리를 한 단위로, 랴오닝성의 단둥을 한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배경에는 우선적으로 지린성 통상구의 경우, 지안을 제외하고 모두 대다수 통상구가 도로 통상구만을 갖고 있는데 반해 랴오닝성 단둥 통상구의 경우 4개의 통상구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별, 통상구 특성별로 구분해 분석하면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둥은 북·중 교역의 중심지로 물량 단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이나 지린성 내륙 통상구들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별·통상구별로 물량, 유동 인원, 교통수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95) 임수호, 김준영(2015), p. 13; 최장호 외(2015), pp. 230~232.

## 가. 수출입 동향

우선 지린성 도로 통상구인 투먼(图们), 사튀쯔(沙坨子), 취안허(圈河), 썬허(三合), 카이산툰(开山屯), 난핑(南坪), 린장(临江), 창바이(长白), 구청리(古城里) (이하 한자 병기 생략)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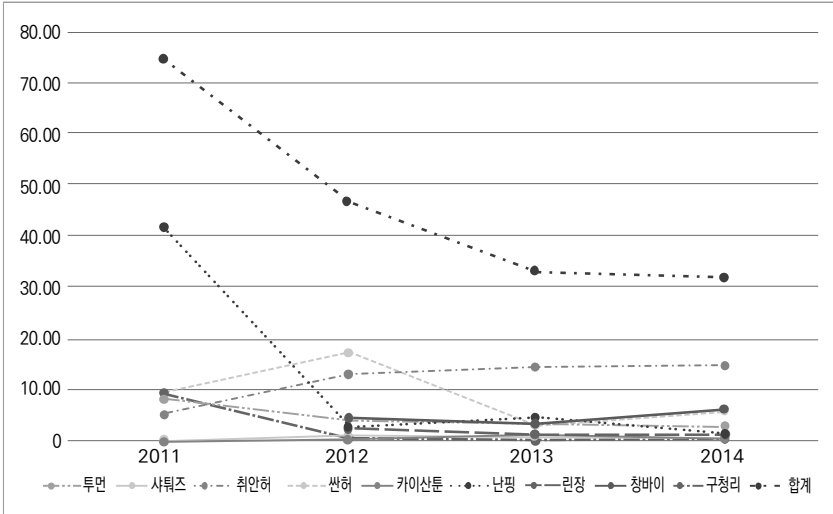
지린성 도로 통상구를 이용한 중국의 대북수출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락 추세에 있다(그림 5-1 참고). 이러한 하락세를 주도한 것은 2011~12년의 경우 난핑을 통한 수출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고 2012~13년은 썬허를 통한 수출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다만 취안허를 통해 나선으로 가는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취안허 도로 통상구는 지린성 도로 통상구 중 대북수출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북수입량의 경우 수출 동향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북수입, 역으로 보면 북한의 대중수출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그림 5-2 참고). 특히 주목할 점은 지린성 도로 통상구를 통한 중국의 대북수입량에서 난핑을 통한 물량이 50% 이상(2014년 기준, 약 55%)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난핑 통상구가 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석 산지인 무산광산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철광석 등 북한산 광물 원자재의 대중수출에 메인 루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의 대북 수입은 썬허, 취안허, 구청리, 창바이 등의 통상구에서도 완만하기는 하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진으로 연결되는 썬허와 나선으로 연결되는 취안허, 혜산으로 연결되는 창바이 등 북한 측 배후 지역의 대중국 상품 수출이 늘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지린성 도로 통상구를 통한 북·중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5-3 참고). 특히 2008년부터 총 수출입 동향을 살펴볼 경우 난핑 통상구의 수출입 동향이 지린성 도로 통상구의 수출입 동향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난핑 통상구를 통한 중국의 대북수입, 즉 북한의 대중수출이 지린성 도로 통상구 전체 교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특기해볼 수 있다.

그림 5-1. 지린성 도로 통상구의 대북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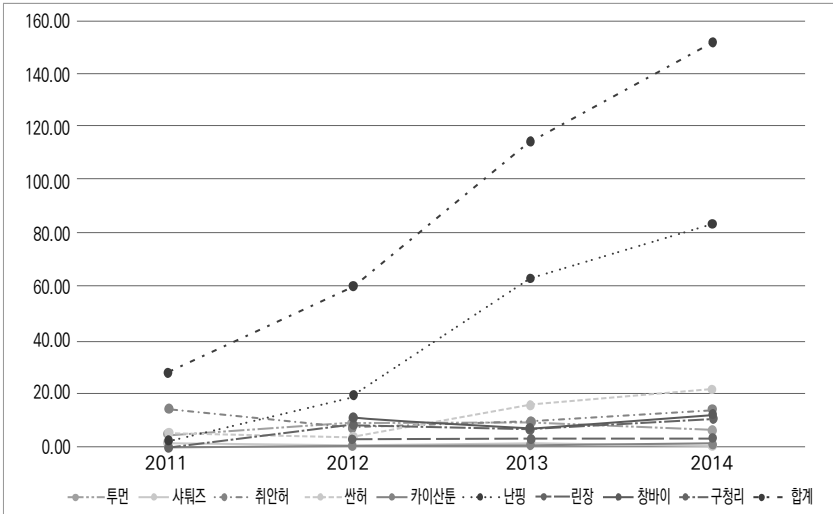
(단위: 만 톤)



자료: 중국통상구연감(中國口岸年鑑)(2012~15)과 김병연, 정승호(2015), p. 20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2. 지린성 도로 통상구의 대북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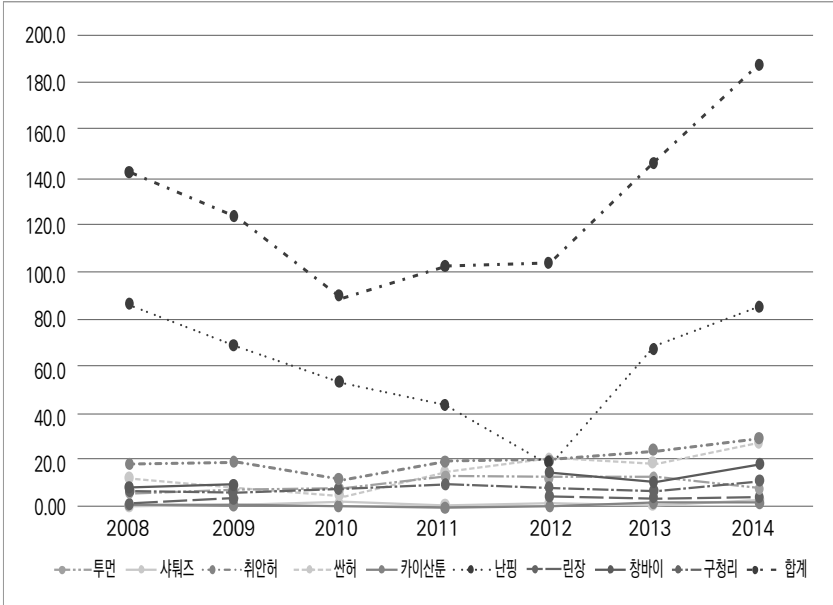
(단위: 만 톤)



자료: 중국통상구연감(中國口岸年鑑)(2012~15)과 김병연, 정승호(2015), p. 20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3. 지린성 도로 통상구의 대북 수출입 동향

(단위: 만 톤)



주: 1. 그래프 선 구별을 위해 합계수치와 상위 5개 통상구 동향만 점선 처리함.

2. 린장과 칭바이는 2010, 2011년 수출입동향 데이터 미발표.

자료: 중국통상구연감(中國口岸年鑑)(2012~15)과 김병연, 정승호(2015), p. 20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지린성 철로 통상구인 투먼, 지안 통상구 역시 지린성의 다른 도로 통상구와 유사하게 중국의 대북수입이 대북수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투먼 철로 통상구의 경우 2000년대 중반 대북 수출입은 난핑 통상구와 함께 전체 지린성 수출입의 성장을 이끌 정도로 큰 규모였다. 다만 2009년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10년대 초반부터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투먼 철로 통상구는 2013년을 제외하고 지안 철로 통상구보다 수출입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린성의 철로 통상구를 통한 북·중 교역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투먼 철로 통상구는 도로 통상구에 비해 더욱 많은 물량을 수출입하고 있는데 투먼이 배후 지역으로 북한 내륙에 연결되고 있어 북한 동해권의 내륙 지역과 중국을 연결하는 교역 루트일 가능성이 있다.

그림 5-4. 지린성 철로 통상구의 대북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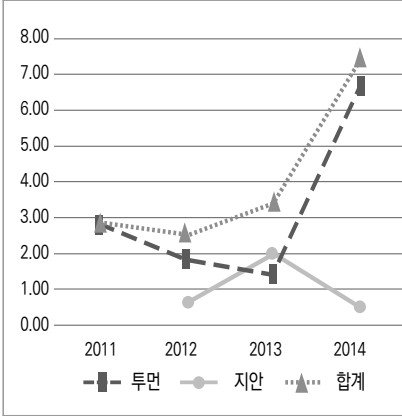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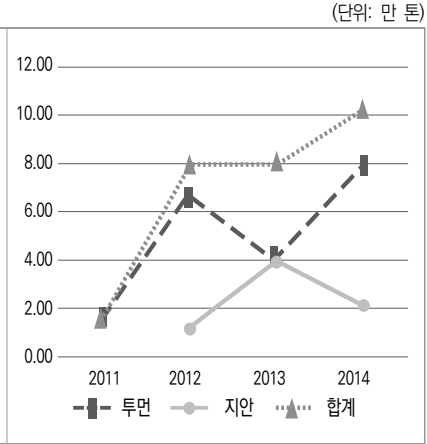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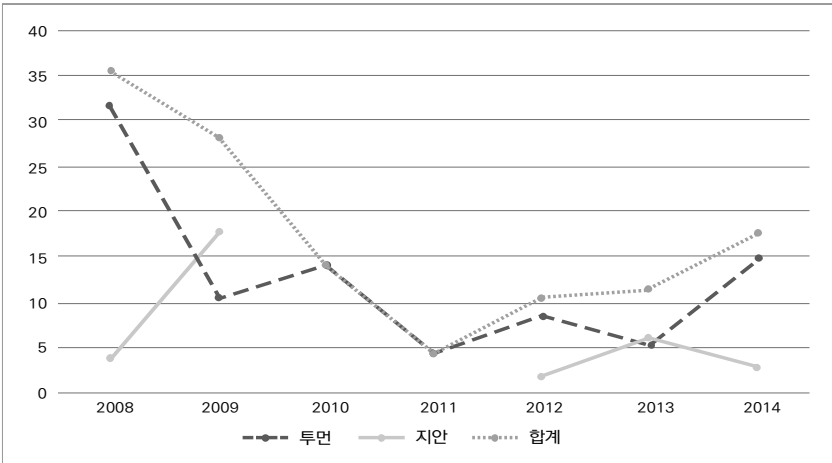


그림 5-5. 지린성 철로 통상구의 대북수입 동향



자료: 중국통상구연감(中國口岸年鑑)(2012~15)과 김병연, 정승호(2015), p. 20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6. 지린성 철로 통상구의 대북 수출입 동향



주: 지안은 2010년, 2011년 데이터 미발표.

자료: 중국통상구연감(中國口岸年鑑)(2012~15)과 김병연, 정승호(2015), p. 20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지린성 통상구에 비해 랴오닝성의 단둥 통상구는 수출입물량(2014년 기준 지린성 도로·철로 통상구 대북 교역량: 205.64만 톤, 단둥 대북 교역량:

1,449.9만 톤<sup>96)</sup>이 약 7배 이상 많을 정도로 북·중 교역의 핵심 공간이다 (그림 5-9 참고). 단동의 항구 통상구는 도로·철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교역량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단동 항구 통상구는 비단 대북 교역만을 위한 역할이 아닌 한국 등 타국과도 교역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단동이 북한과 인접한 변경지역으로 항구 통상구의 상당량은 대북 교역이 차지할 것이라는 짐작은 해볼 수 있다. 한편 도로·철로 통상구의 경우 지린성에 비해 수출입 교역량이 훨씬 큰 편이다. 특히 단동 도로 통상구는 지린성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대북수출 물량(2014년 기준)을 보이고 있고 완만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북한 측 배후 지역인 신의주·평양으로 전달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십분 발휘된 것에 배경을 두고 있다.

그림 5-7. 단동 통상구의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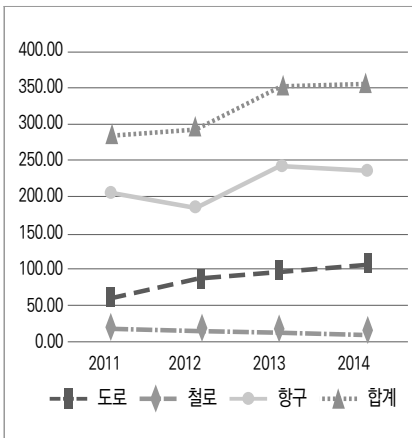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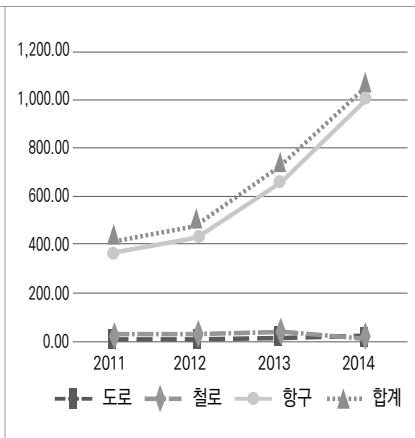


그림 5-8. 단동 통상구의 수입 동향

(단위: 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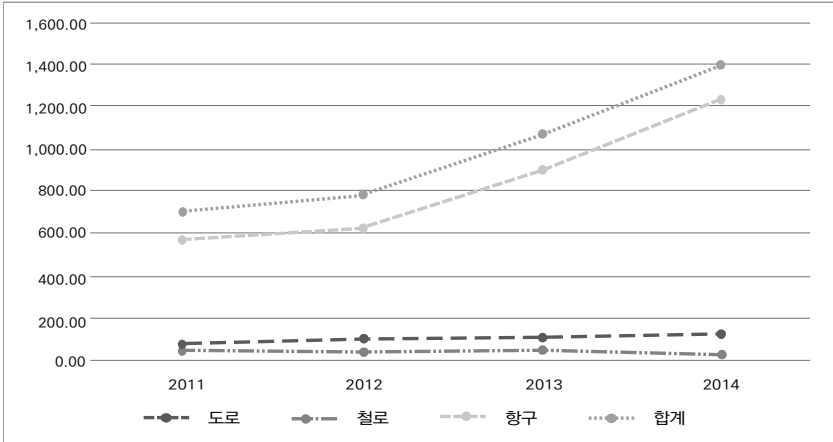


자료: 중국통상구연감(中國口岸年鑑)(2012~1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96) 이 수치는 2011년 관로(파이프) 통상구를 통해 대북 수출된 물량(약 53만 톤)이 이후 데이터 제공이 되지 않아, 2011년 물량을 기준으로 2014년 수출입 합계에 더한 값임. 단동 통상구는 도로, 철로, 항구, 관로(파이프)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1년 이후로 관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도로·철로·항구 통상구의 수출입 물량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5-9. 단둥 통상구의 수출입 동향

(단위: 만 톤)



주: 항구 통상구는 중국의 대북 교역뿐만 아니라 한국 등 타국과도 교역을 하는 곳으로 온전히 대북 물동량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료: 중국통상구연감(中國口岸年鑑)(2012~1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출입국 인원 유동과 교통수단 동향

북·중 통상구를 통해 비단 상품 수출입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인원과 교통수단의 왕래 역시 북·중 교역의 중요한 지점이다. 가령 북한이 관광 활성화를 통해 외화 획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북·중 접경지역에 임가공을 위해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인원 유동이 비상품 무역의 일환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통수단 역시 상품무역, 관광, 노동자 인력 파견 등 서비스 무역의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유동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입체적으로 통상구 교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상구연감(口岸年鑑)』(2012~15)에서는 입경과 출경의 인원 및 교통수단의 수치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인데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sup>97)</sup> 첫 번째 가능성은 중국과 북한의 정치 체제의 성격상 각기 다른 국

97) 가령 2014년 기준 난평의 출경 인원 약 2만 6,900명, 입경 인원 약 2만 6,900명, 구청리 출경 약

적의 사람들의 입출경이 매우 어려운 편이라 입경과 출경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관광, 임가공 등으로 북·중을 왕래한 인력에 대해 중국 당국이 철저히 관리 통제함에 따라 출입경 유동 인원이 거의 유사하게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중국 당국에서 의도적으로 인원과 교통 수단 수치를 거의 유사하게 집계하는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특히 인원의 경우 큰 차이가 발생하면 그 배경에 따라 양국 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에 통계상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sup>98)</sup> 따라서 위의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석이 필수적이다.

지린성 도로 통상구의 경우 입출경 유동 인원 및 교통수단 모두 취안허 통상구가 큰 비중(2014년 기준 약 74%)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5-10, 5-11 참고). 취안허 통상구의 경우 유동 인원과 교통수단이 모두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동해에서 생산된 북한산 수산물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취안허 통상구에서는 주로 소규모 중 영세 규모의 상인들이 종사하는데 이들이 중소 규모의 중형 냉동차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인편으로 북한산 수산물을 공수하는 교역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난핑과 비교하면 한층 잘 부각된다. 무산광산의 철광석을 수입하는 주요 루트인 난핑은 취안허에 비해 입출경 유동 인원 증가율보다 교통수단 유동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수출입 물량, 특히 수입물량에 비추어 볼 때 난핑은 인력 왕래를 통한 교역보다는 대형 트럭을 통한 북한의 광물 대중수출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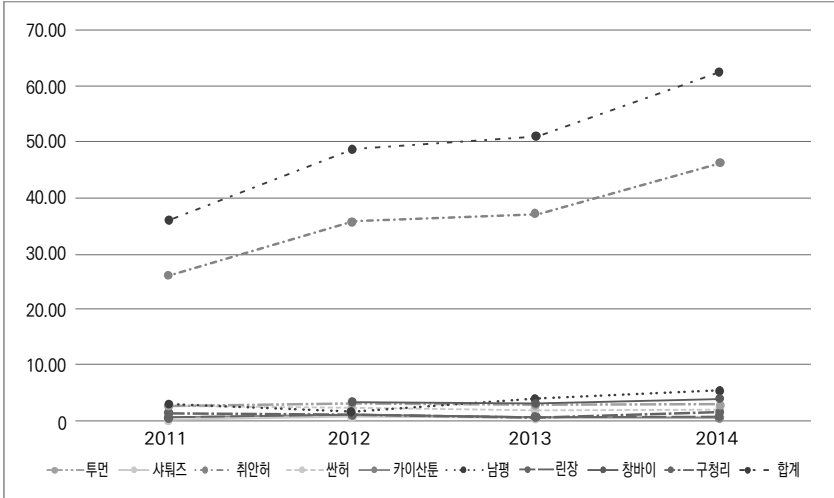
---

6,800명, 입경 약 6,800명, 싹허 출경 약 1만 8,100명, 입경 약 1만 8,100명 등 입출경이 거의 동일하게 제시됨. 데이터가 백의 자리까지만 제공되는 것이라 십, 일의 자리 등 하위 단위에서는 변화 폭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 통상구연감 데이터는 입출경을 거의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음.

98) 북·중 접경지역 현지조사, 지린성 훈춘시 관계자, 2016년 9월, 중국 통상구는 해관, 변방의 관리를 받기에 매우 엄격하게 인원의 입출경을 관리 통제하고 있다고 함.

그림 5-10. 지린성 도로 통상구의 입출경 유동 인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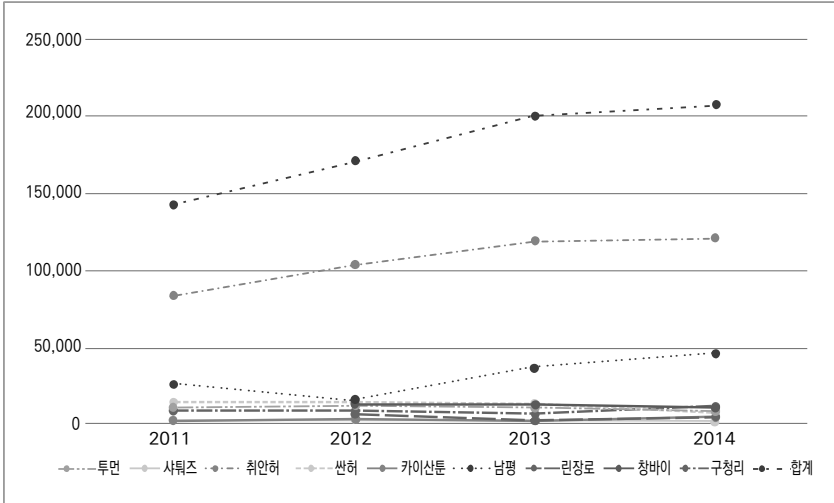
(단위: 만명)



자료: 중국통상구연감(中國口岸年鑑)(2012~1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5-11. 지린성 도로 통상구의 입출경 교통수단 동향

(단위: 대)



주: 그래프 선 구별을 위해 합계 수치와 상위 5개 통상구 동향만 점선 처리함.

자료: 중국통상구연감(中國口岸年鑑)(2012~1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5-12. 지린성 철로 통상구의  
출입경 유동 인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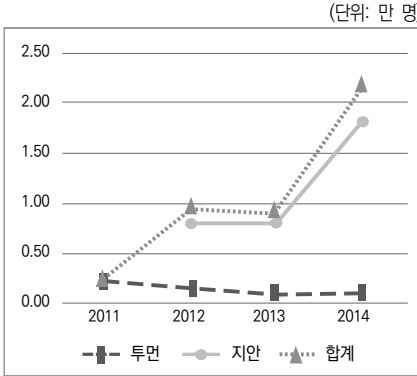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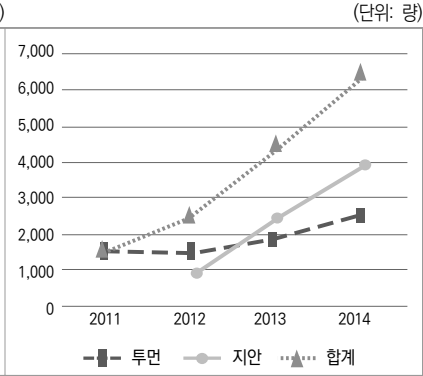


그림 5-13. 지린성 철로 통상구의  
교통수단 동향



자료: 중국통상구연감(中國口岸年鑑)(2012~1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지린성 철로 통상구를 통한 출입경 유동 인원과 교통수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지안 철로 통상구가 이러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안-만포, 지안-만포-평양까지 이동하는 관광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차를 타고 평양까지 방문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투먼 철로 통상구의 경우 투먼의 수출입 동향과 비교 분석해볼 경우(그림 4-6 참고), 투먼 철도 통상구는 화물열차가 주종이라 인적 교류용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랴오닝성 단둥의 경우 대북 유동 인원은 2011~14년까지 25만 명 내외를 유지하는 반면 교통수단의 경우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 통상구의 유동 인원이 다소 저하되는 한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차량 교통수단은 15만 대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북 상품무역 수출에 보다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함축한다. 한편 철로 교통수단은 2014년 감소했는데 에볼라 바이러스 등으로 북한의 대외 교류가 차단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차 이용이 제한되었고, 그럼에도 기차를 이용한 유동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관광, 평양-신의주 라인의 대북 투자 및 기타 인적 교류에 목적을 둔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그림 5-14. 단동의 대북 유동 인원 동향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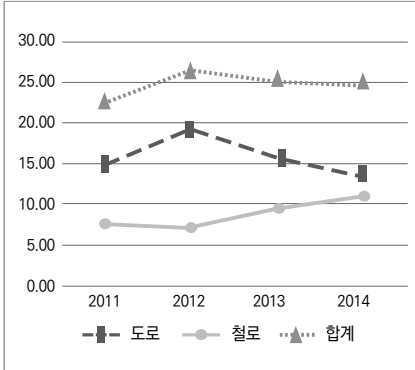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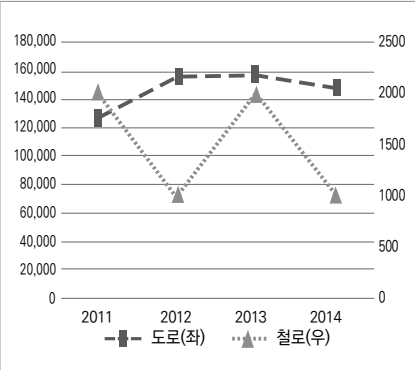


그림 5-15. 단동의 대북 교통수단 동향

(단위: 차량 1대, 기차 1량)



자료: 중국통상구연감(中國口岸年鑑)(2012~1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북·중 통상구 교역의 특징

앞에서 언급한 북·중 통상구 교역 분석을 통해 그 특징과 발전 전망을 살펴 보면,

첫째, 지린성 통상구는 중국의 대북수입 루트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랴오닝성 단동 통상구는 지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북수출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린성 난핑 도로 통상구는 북한의 광물 자원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바이·싼허 통상구 등을 통해서도 광물 자원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는 지리적 근접성에 가장 큰 배경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취안허 통상구 역시 북한의 수산물 수입 주요 루트로 부상하고 있는데 지린성 도로 통상구의 대북수입 루트 기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배종렬, 윤승현(2016)은 지린성의 대북 투자가 중국 타 지역의 수준을 초월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지린성 사업 주체가 북한 측 접경지역 및 배후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설비제공형 투자에 근거할 경우, 99) 투자 수익을

대북수입으로 획득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각 통상구의 교역 특징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북·중 교역은 북한의 광물 중심의 대중수출이 부각되는 한편, 이러한 수출이 어느 루트로 들어오고 있는지는 다소 논의가 미진했던 편이다. 북한의 제1 수출품인 무연탄의 경우 선박을 통해 대중수출이 이루어지는 반면 철광석의 경우 난징 통상구와 인근의 쑤허 등을 통해 수입되고, 구리(동), 금 등 다른 광물자원의 경우 창바이 통상구를 통해 수입되고 있다.<sup>100)</sup> 취안허의 경우 중소·영세 규모의 사업 주체가 북한산 수산물 및 의류 피복을 수입하는 주요 루트이고 지안의 경우 대북 관광 및 방문의 새로운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단둥은 북·중 교역의 메카로 평양-신의주로 이동되는 대북수출의 핵심 지역이자 항구를 활용한 북한산 수입품이 들어오고 중국 배후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북·중 관계의 악화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구의 공식 교역이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같은 해 12월 장성택 척결 등 북·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북·중 접경지역의 통상구를 통한 공식 교역은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2015년에는 북·중 무역이 2014년 대비 14.7%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외적으로 국제원자재 가격, 중국 대내적으로 경기 둔화와 환경 정책 강화,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최장호, 최유정 2016). 즉 북·중 관계 악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임을 의미한다.

넷째, 지린성을 중심으로 인원 이동 및 교통량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단둥의 경우 신암록강대교 등 신규 통관 인프라를 구축하기는 하였으나 개통이 지연되는 한편, 선양-단둥-신의주-평양행 국제열차가 4량에 불

---

99) 임수호, 김준영, 홍석기(2016); 김병연, 정승호(2015).

100) 최장호, 최유정(2016), p. 6.

과한 상황이라 인원 유동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지린성의 경우, 창지투 개발의 일환으로 취안허 통상구가 개보수 작업을 거치는 등 통관 시설 인프라가 개선되었다.<sup>101)</sup> 또한 접경지역인 훈춘·도문 등에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한 임가공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 측 노동자가 유입되는 한편 북한은 관광산업을 통해 외화 획득을 확대해가는 정책 기조 역시 지린성의 유동 인원 및 교통수단 유동량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종합하면 북·중 통상구 교역은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교역의 또 다른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각 통상구와 그 배후 지역으로 어떠한 상품과 인원들, 교통수단이 오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변화 동향, 증감 추세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통상구의 배후 지역에서 일종의 분화된 경제협력 구조, 즉 분업체계가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다는 분석에 입각해볼 경우,<sup>102)</sup> 이를 통해 개별 통상구의 기능이 심화되어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업체계에서 일정한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01) 최장호 외(2016), p. 93.

102) 최장호 외(2015).

우리는 지금까지 전체적인 북·중 무역과 랴오닝성·지린성 등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무역의 현황 및 특징, 대북제재로 인한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분석한 연구 내용을 근거로 북·중 간 전체 무역이나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구조와 특징을 동시에 고려해볼 경우, 기존의 대북제재가 북·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대북제재로 북·중 간 거래관행의 지도가 변화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국의 대북제재 시행 정도에 따라 북·중 교역의 중심지인 랴오닝성 단둥, 지린성 옌벤주 등 접경지역에서의 교역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 변화에 불과하다. 오히려 대북제재보다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중국의 석탄 등 광물자원 수요 증가 등과 같은 국제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역량 변화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또한 제2장에서 5장까지 분석된 내용을 통해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중 간 무역 거래관행을 살펴보았다. 구소련에 의지하던 북한의 대외 무역은 소련 붕괴 후 아시아권 국가와의 교역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북·중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① 북·중 간 무역 규모의 급속한 증대 ②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대 ③ 중국의 대북수입 증대 ④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상품 구조 변화 ⑤ 중국의 대북무역이 동북3성 위주에서 산둥성, 강소성, 사천성, 하북성 등 남방연해안 지역으로의 확대 등의 특징을 나타내며 변화하였고 현재까지 이러한 특징들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간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소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북·중 양국은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정치적·경제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

랴오닝성의 북·중 무역은 육상으로 중국과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국가 간 주요 무역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무역이 어려워지고, 특히 대금결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2013년부터는 단둥에 소재하는 중국 기업과 북한 기업 간 신뢰관계에 따른 특수 결제 방식(신용제공 결제)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중 무역에서 단둥 지역의 중요성은 공식 무역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비공식 무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 민간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 등이 이러한 루트를 통해 확보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단둥은 북·중 무역에서 중요한 지점 이긴 하지만 랴오닝성 전체 무역 추세와 비교하면 특수한 성격을 띠는 대북무역에 집중되어왔기 때문에 보세구나 보세항 등 국가적인 무역 다원화를 위한 혜택의 활용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단둥시의 지역적 한계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이므로 향후 단둥 지역에서의 국제무역은 보다 '정규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북·중 무역이 중국의 이러한 무역 구조 변화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지속적으로 관찰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린성은 두만강 및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함경북도·양강도·자강도 등 지역과 유구하고도 활발한 경제무역 협력을 진행하여왔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지린성의 대북무역은 질과 양에서 모두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대북제재 시행 후 지린성의 북·중 무역 주요 품목들은 제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변경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현상 유지 내지는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중 무역 비율로 살펴 볼 경우 랴오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지린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한 견해지만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6년 3분기

까지 통계를 분석해보면 지린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변경무역 위주의 지린성 대북무역은 단둥, 다롄항으로 운반되어 일반무역 통계로 계상되는 무산철광의 철광분 수입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교역 물동량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중국해관의 통계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북·중 무역의 주요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무역·변경무역·가공무역·보세무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중 전체 무역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북·중 접경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큰 차이가 없으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연히 작음을 볼 수 있었다. 분석기간(2007~15) 접경지역의 대중수출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변경무역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접하는 곳에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북·중 무역에서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에서만 가능하다. 이들 접경지역은 북·중 무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북·중 간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변경무역이 북·중 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수입 측면에서는 일반무역 다음으로 규모가 큰 무역 형태이고 수출 측면에서는 일반무역, 보세창고 수출입 화물 다음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무역 형태이다. 2016년 초 유엔 대북제재 이후로 중국 기업들의 대북 위탁가공 주문, 또는 출경가공 주문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의류가공 부문에서 두드러지는데 평양 지역의 의류가공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외화 획득 통로가 좁아짐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닌 의류 부문의 비교우위를 이용해 임가공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에서의 보세무역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대중수출에서 보세무역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그 비중은 30~40%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공무역의 경우와 같이 접경지역에서의 보세무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의 보세무역 수출 비중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보세무역이 접경지역에

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대중국 보세무역 수출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미루어봤을 때 5·24 조치 이후 중국을 통해 한국·일본 등 제3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북·중 무역을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분류하여 주요 교역 품목들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북한이 중국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수출하는 양은 비슷한 수준이며, 비접경지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은 광물류가 차지하고 있다. 광물 중에서도 무연탄이 대부분이며 산동성과 같은 비접경지역으로 수출되어 중국 기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접경지역으로 수출되는 광물류의 경우 대부분 그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한 용도일 개연성이 높다. 접경지역에서의 수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품목군은 의류와 광물인데 의류 품목이 광물 품목의 수출을 상회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류품목의 세부 구성은 99% 이상이 완제품으로 이뤄져 있다.

북한 대중수입의 경우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이 비접경지역에서의 부터의 수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수입은 수출보다 품목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이 소비하는 다양한 소비재나 중간재들을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접경지역의 주요 대중수입 품목 중 하나인 의류 품목은 수출에서의 경우와 달리 세부 품목들이 원자재와 완제품을 망라해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해관 통계에서 수출하는 의류는 완제품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의류는 완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도 북한 위탁 가공무역이 새로운 비교우위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공식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밀무역도 자연스럽게 증대하고 있다. 북·중 밀무역은 지역적으로 랴오닝성 압록강 하구와 공해,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비교적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접경지역을 따라 광범위하게 소규모의 민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차이에도 밀무역의 주요 배경으로

는 ① 지역 경제의 낙후성 ② 장기간의 관행 ③ 사회문화적 유대 요인 ④ 교역 품목의 금수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고 관행화되어 있어 설령 단속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중단될 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밀무역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sup>103)</sup> 아울러 대북제재로 인한 금수 품목의 조달 어려움, 장마당이라는 북한 경제 시스템 구축 등 밀무역을 통한 중국 상품의 수요가 계속되는 한 북·중 밀무역을 단속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중국과 북한은 새로운 분야, 즉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품 무역인 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제재 여부에 상관없이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주요 교역 중심지인 단둥과 북한·러시아로의 진출이 용이한 연변주 등 접경지역을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지금도 북·중 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훈춘, 도문에 이어 허룽시(和龙市)에 변경국제합작구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통한 임가공산업 육성, 북한의 백두산 삼지연과 무산 지역 인근의 무봉국제관광지대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중 통상구 관련 통관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가면서 상품 무역, 인원 교류, 교통수단 등 전방위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항시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2016년 10월 25~26일, 평양에서 〈중·조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中朝边界联合委员会第三次会议)〉가 진행되었다. 북·중 양측은 공안과 환경보호, 교통, 수자원, 국방, 항구 부문 등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접경지역 인프라 건설, 변경지역 협력 및 통상구 개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04)</sup> 만약 이 회의를 계기로 2016년 11월 현재 단둥의 신통상구 및 신압

103) 巴殿君(2007)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 밀수에 대한 현지조사 연구에 따르면 일본 동해권 지역의 낙후된 경제로 대북 밀수 사업이 추가 소득을 확보하는 일종의 '소득원'이기 때문에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104) 〈중·조 국경공동위원회〉는 2009년 중조 국경관리제도의 집행기구로 국경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협상과 해결을 담당, 2011년부터 격년 정기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중

륙강대교, 지안의 새로운 도로통상구 등 각지에서 대형 신규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개통이 실현된다면 북·중 통상구 교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통관 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구축 및 개통은 제재 대상이 아닌 북·중이 연결된 정치적 타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접경 지역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중국은 건국 초기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동북 지역의 명성을 되찾고 미국·일본 등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동북아시아 중심 국가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미래 태평양시대로의 진출을 위하여 일대일로(一帶一路), 동북진흥(東北振興), 창지투(長吉圖) 개발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추진 과정에는 북·중 접경지역의 인프라 확충, 유지 보수, 북·중 경제산업단지 건설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들은 주변국과의 통상구 인프라를 개선하여 중국 측 접경지역과 주변국의 상호연계성(互聯互通, connectivity)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중앙 정부를 비롯해 지방 정부에서도 모두 일대일로와 관련된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중 랴오닝성 단둥시, 지린성 통상구가 위치한 지방 정부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맥락에서 북·중 경협은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 시행에 대해 흔히 “상부의 정책이 있으면 하부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라고 말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대북 사업에 종사하는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대북제재라는 압박감이 있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민생 목적의 대북 교역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북·중 무역거래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

국 측은 북한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두만강 임시부교를 설치하고 물자 지원을 제안한 점이 주목할 점이다. 참고: [http://news.xinhuanet.com/photo/2016-10/27/c\\_129339227.htm](http://news.xinhuanet.com/photo/2016-10/27/c_129339227.htm)(검색일: 2016. 11. 10).

는 분위기이다. 또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만의 방법(대책)으로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오랜 시간 중국 무역상과 거래를 해온 북한 기관이나 무역상들도 장기간의 대북제재로 인한 대책을 수립해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오랜 기간 북·중 간 무역거래와 투자 진출 등 경험을 통해 북한 장마당의 물품이 중국 상품으로 채워지고 중국의 문화가 들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무역을 통해 들어간 중국 상품들은 북한 주민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으며 북한 장마당 활성화, 중국에서 제조된 택시와 핸드폰의 북한 내 운영 등 북한 내부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가 시행 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북·중 간 무역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고 북한 내부 경제는 장마당 활성화, 물가 안정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 상황에도 북한은 올해 9월 초, 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UNSC는 11월 말, 2321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강화된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제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북제재가 향후 북·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중국 동북3성은 북·중 접경지역으로 역사적·문화적·민족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북·중 간 경험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중 관계가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있어 중국 어느 지역보다도 선제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동북3성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경제협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미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 문제 해결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과 북 스스로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통한 해결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사회 선두에서 대북제재의

적극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은 정책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중국과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우리에게도 중요시되고 있는 동북 지역의 부흥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에서의 한·중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동북 지역, 특히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한·중 간 경제협력 발전은 북한에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북·중 간 경제협력은 대부분 교량 건설, 개발구 건설, 관광특구 건설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량 건설은 물동량 교역과 인적 교류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개발구 건설과 관광특구 건설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북 지역은 보건의료, 관광, 신에너지, IT, 물류 등의 산업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별 개발구 건설을 계획하고 이곳에 해외 우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중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 지역의 중점 육성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 우리 정부는 동북 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동북 지역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중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동북진흥 사업 분야의 우리 기업 참여와 중국의 해외 투자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 보장 등 제도적인 투자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기업의 동북 지역 진출과 한·중 경제협력은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동북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동북 지역 지방정부에 북한과의 경협에 대한 중요성을 감소시켜나가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동북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그 지역의 동포 기업과 함께 대북 경제 사업의 주체가 되어 북한 내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병연, 정승호. 2015. 『중국의 대북 무역과 투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영수. 2006. 『최근 북한민주의 생활상 변화와 체제의 작동원리 분석』. 통일부 용역보고서.
- 노동연구원. 2012. 『통일 이후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노동부 용역보고서.
- 박명서. 2014. 『북중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실태』. 통일교육원.
- 배종렬, 윤승현. 2016.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KIEP.
- 이석기, 양문수, 정은이. 2015. 『북한 시장실태 분석』. 산업연구원.
- 이종운, 홍이경. 2013.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연구자료 13-04. KIEP.
- 임수호. 2008. 『계획과 시간의 공존』. 삼성경제연구원.
- 임수호, 김준영. 2015. 「중국 뉴노멀 시대 북·중 경협외의 구조적 변화」.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22. KIEP.
- 임수호, 김준영, 홍석기. 2016.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연구자료 16-06. KIEP.
- 정형곤, 방호경. 2009.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동북아연구시리즈 09-04. KIEP.
- 정은이, 박종철. 2014. 「중국의 대북한 무역에 관한 연구: 무역 관행과 행태 및 행위자의 변화추세에 따른 역동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6권 2호.
-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2015.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 15-13. KIEP.
- 최장호, 이보람, 김준영, 张慧智, 朴英爱, 王箫轲. 2016.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재원조달: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16-09. KIEP.
- 최장호, 최유정. 2016. 「2015년 북한의 대중무역 분석」. 『오늘의 세계경제』, Vol. 16, No. 16. KIEP.

홍익표. 2006. 「북중 변경무역의 실태분석 및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15.2.  
KOTRA. 2004~2015. 「북한 대외무역동향」.  
KOTRA. 2014. 「경제속보」.

#### [중문자료]

关于进一步发展边境贸易的补充规定的通知. 1998.  
林今淑. 2009. 「中朝贸易的现状及对策研究」. 『延边大学校学报(社会科学版)』, Vol. 42, No.1.  
國務院关于边境贸易有关问题的通知. 1996.  
沈晓丹. 2009. 「辽宁五点一线发展战略研究-丹东对朝边境小额贸易发展问题探析」, 辽东学院.  
『辽宁省统计年鉴』. 2015. 중국통계출판사  
중국통상구연감(中國口岸年鑑). 2012~2015.  
중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604/20160401289770.shtml>(검색일: 2016. 10. 5).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http://dbzxs.ndrc.gov.cn/zttp/zxxz/201510/t20151030\\_757197.html](http://dbzxs.ndrc.gov.cn/zttp/zxxz/201510/t20151030_757197.html)(검색일: 2016. 10. 5).

#### [일문자료]

巴殿君. 2007. 「日本と中国東北3省貿易の現況と展望」, No. 19, 2007. 10.  
富田圭一郎. 2006. 「核開発問題をめぐる中国の北朝鮮政策—2002年10月~2005年11月」. 国立国会図書館『ISSUE BRIEF』, No. 507.

#### [영문자료]

Noland, Marcus. 2009. "The (non-) impact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 *Asia Policy*.

#### [신문기사 및 통계자료]

「훈춘 출경가공업무 200% 증폭」. 2016. 『길리신문』. (3월 14일) [http://kr.chinajilin.com.cn/econ/content/2016-03/14/content\\_170570.htm](http://kr.chinajilin.com.cn/econ/content/2016-03/14/content_170570.htm)(검색일: 2016. 10. 20).  
남북교역통계. 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검색일: 2016. 10. 19).  
「중국 광물 수출입금지에 북한 외화벌이 타격 클 듯」. 『연합뉴스』. (4월 5일) <http://>

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5/0200000000AKR20160405183800097.HTML?input=1195m(검색일: 2016. 10. 5).

「中, 단둥주재 北공작원 구속, 53억원 압수... 금지물품 밀수 관여」. 2016. 『연합뉴스』. (6월 12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2/0200000000\\_AKR20160612010400073.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2/0200000000_AKR20160612010400073.HTML?input=1195m)(검색일: 2016. 10. 5).

중국어관신식망. www.haiguan.info(검색일: 2016. 9. 9).

중국어관 <http://www.china-customs.com/customs/data/2102.htm>(검색일: 2016. 10. 20).

『중앙일보』. 2016. 9. 19. 「北기업, 유명회사 세워 교묘히 무역제재 피해가」 외 다수. <http://news.joins.com/article/20606657>(검색일: 2016. 10. 6).

Global Trade Atlas. <http://www.ihs.com/products/maritime-global-trade-atlas.com>(검색일: 2016. 10. 13).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검색일: 2016. 9~11월).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11/globalBbsDataList.do?setIdx=249>(검색일: 2016. 9. 9).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8)(검색일: 2016. 10. 19).

BBC中文网. 「涉助朝鲜核计划-中国丹东鸿祥实业被美韩智库点名」, (2016. 9. 20). [http://www.bbc.com/zhongwen/simp/business/2016/09/160920\\_north\\_korea\\_china\\_sanction](http://www.bbc.com/zhongwen/simp/business/2016/09/160920_north_korea_china_sanction)(검색일: 2016. 11. 2).

창원세관. <http://english.customs.go.kr/kcshome/main/dic/DictionaryView.do;jsessionid=shNyXkrJm0pjn7ynr0LtJFcR7vQZCvv0XXLgzvQYBNmh4bLvNx4w!38168827?layoutMenuNo=14944&pageUnit=10&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Word=&type=1&vocaId=388>(검색일: 2016. 10. 20).

中国南方周末, 2010. 7. 1, 저자 번역 재구성. <http://www.infzm.com/content/47023>(검색일: 2016. 10. 13).

新华社. [http://news.xinhuanet.com/photo/2016-10/27/c\\_129339227.htm](http://news.xinhuanet.com/photo/2016-10/27/c_129339227.htm)(검색일: 2016. 11. 10).

#### [현지조사 · KIEP 전문가 간담회]

북 · 중 접경지역 현지조사(랴오닝성 선양시, 단둥시/지린성 엔지시, 훈춘시, 투먼시)

및 인터뷰. 2016. 4~9월

- 지린성 엔지시 무역업 종사자, 훈춘시 관계자.

- 랴오닝성 단둥시 관계자, 무역업, 물류업 종사자.

KIEP 전문가 간담회(2016년 9월~11월, 총 3회)

#### [지도자료]

GoogleEarth Program.

#### [관련자료]

이창주. 2016. 『대북제재 예외 나선특별시, 둘러봤더니...』. 『오마이뉴스』. (10월 1일)

조명철, 양문수, 정승호, 박순찬. 2005.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05-17. KIEP.

东让亚於拓. 2009. 「中朝经济关系的现状与前景」, 第8卷 第4期.

陈可. 2011. 「中朝经济合作与朝鲜经济发展」, 四川大学.

何迪, 王丽媛. 2014. 「中朝跨境经济合作开发之障碍及保证机制」, 通化师范大学.

盛松成. 2007. 「关于推进中朝贸易边境贸易本币结算的思考」. 『金融时报』, 第6版.

张慧智. 2006. 「朝鲜的经济变化与中国的作用」, 亚太经济.

张玉山. 2006. 「中朝经贸关系发展的现状及未来走势分析」, 吉林省社会科学院 朝鲜  
韩国研究所.

于广义. 2008. 「中朝经贸合作的现状、问题及对策」. 『党政干部学刊』.

张颖 孙秀英. 2009. 「朝核危机下探析中朝经贸合作问题」, 辽宁经济.

## Analyzing the Changes in Trading Practices in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Due to North Korea Sanctions

RHEE Jung-kyun, KIM Junyoung, IM So Jeong, AN Guo-shan, and MIMURA Mitsuhiro

Due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the UNSC's sanctions on 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North Korea-China trade is one of the most internationally recognized issues, and many analyzes and studies are underway.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comprehensive trading practices of North Korea and China, centering on the border areas of Liaoning Province and Jilin Province, which serve as outposts in China's trade with North Korea.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hanges in trading practices in the UNS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2006 ~ 2016 (No. 2270)) and bilateral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due to bilateral sanctions.

The disconnection of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stemming from Japan's ban on trade with North Korea in 2006 and the suspension of inter-Korean trad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5.24 measures in 2010 seemed to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North Korea's foreign trade. However, in the late 2000s, the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mineral resources du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the increase of Chinese enterprises' trade and investment in North Korea replaced the place, and the dependence of North Korea on China trade became even more increased. The UNSC'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independent bilateral sanctions imposed by the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contributed to the deepening of North Korea's dependence on China and the increase of trade in North Korea and China. In addition, considering the trad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China whole-trade and the border region, the effect of the existing North Korean sanctions on the North Korean and Chinese trade is very weak and the North- You can see that the map has changed.

Since the 2000s, the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s started from complementary relations. ① there has been a rapid increase in trade volum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② the dependence of North Korea on China's trade has increased, ③ China's imports to North Korea increased, ④ structural change in trade items, ⑤ China's trade with North Korea has changed from the three provinces of the northeast to the southern coastal areas such as Shandong, Jiangsu, Sichuan, and Hebei provinces.

In Liaoning Province,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plays a major role as a major trade channel between China and Pyongyang. However, since the normalization of trade in North Korea is becoming more difficul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in the period from 2013 when the issue of settlement of accounts has begun to arise, a special settlement system (trust payment). The importance of the Dandong region in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evident in both formal and informal trade.

Jilin Province's trade with North Korea has made great progress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in the 2000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in North Korea, Jilin Province's main items of North Korea and China trade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sanctions, and most of them are in the form of changed trade.

The main types of trad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based on statistical data of China Customs can be divided into general trade, change trade, processing trade, and bonded trade. General trade accounts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total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case of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e share

of general trade in North Korea's public imports is not much different, but it is clear that the proportion of the total exports is considerably small. Since the change trade can only be done in a geographically bordered area, it can only be done in Liaoning Province and Jilin Province in North Korea and China Trade. These border areas serve as trade bases for North Korea and China, accounting for more than 70% of the total bilateral trade. Since the United Nations sanctions on North Korea in early 2016, Chinese companies have become increasingly active in ordering or outsourcing orders to North Korea. Especially in the garment processing sector, clothing processing plants in Pyongyang are continuously operating. This suggests that North Korea is actively engaged in the trade of clothing after using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the clothing sector, which is not subject to sanctions, as the international dispatch of North Korean workers becomes more difficult and the passage of foreign currencies narrows. As for the bonded trade in the border region, the size of the bonded trade has greatly increased in the mass exports, and the proportion of the trade has been steadily maintained at 30 to 40%. As in the case of processing trade, the share of bonded trade exports in the border region is higher than that of bonded exports in total exports, which means that most bonded trade takes place in the border region. In particular, it can be inferred that exports to third countries such as Korea and Japan are actively being carried out through China after 5.24 measures, given that North Korea's rapid exports of bonded trade exports to China have increased since 2010.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North and the China trade as the border region and the non-border region and comparing the main trade items. The amount exported by North Korea to the border and non-border regions of China is comparable, and most of the exports to non-border regions are occupied by minerals. The most prominent items in the border region are clothing and minerals. Apparel items account for more than the exports of mineral items, and more than 99% of the detailed items of apparel items are finished products. In the case of

North Korean mass imports, imports from the border region are much higher than imports from non-border regions. In general, imports are more distributed than exports, indicating that various consumer goods and intermediate goods consumed by North Korea are covered by imports from the border region.

As formal trade has expanded in the border reg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muggling trade is also naturally increasing. It is estimated that the smuggling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relatively systematic and large scale in the region of Liaoning Province, Yalu River Estuary, Pollution, and Jilin Province Changbai. In addition, it seems that a large number of small-scale private transactions are taking place along the border areas of the Yalu and Tumen River basins. Despite the regional differences, the major backgrounds of the smuggling trade are ① the fall of the local economy, ② long-term practice, ③ socio-cultural ties, and ④ embargo on trading items. In this situation, local residents are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and even if there is a crackdow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resuming, even if the crackdown is temporarily suspended. This is also the reason that the smuggling trade is not eradicated.

Currently, North Korea and China are cooperating with each other in expanding trade in non-commodity trading service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new sanctions,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regardless of sanctions. It is very likel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activate the border areas of Dandong, North Korea's main trade hub with North Korea, and Yen Banju, which is easy to reach into Russia, and North Korea and China are showing such a movement even now.

China, on the other hand, i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le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the border region. The policies related to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are aimed at improving the trade infrastructure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strengthening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he border regions and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China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trading practices centered on Liaoning Province and Jilin Province, which are bordered by North Korea and China, and analyze the trade practices of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border region. The changes were analyzed. This study aims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and system of North and South Korea trade while also examining the changes i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border reg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aused b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                |       |   |
|----------------|-------|---|
| <p>■ 2016년</p> | 16-01 |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 김주권   |
|                | 16-02 | 주유국의 대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곽성일·이재호  |
|                | 16-03 |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 방안 / 엄준현·손성현·권가원   |
|                | 16-04 |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 유세별  |
|                | 16-05 |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 박정호·강부균  |
|                | 16-06 |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 임수호·김준영·홍석기   |
|                | 16-07 | 원화 국제화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 이장영   |
|                | 16-08 | WTO SPS 분쟁사례 연구 / 강민지   |
|                | 16-09 |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자원조달-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 최장호·김준영·이보람·张慧智·朴英爱·王箫轲  |
|                | 16-10 |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 이형근  |
|                | 16-11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구축을 중심으로 / 김종덕·최보영·엄준현·정민철  |
|                | 16-12 |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 이정균·김준영·임소정·안국산·미무라 미쓰히로   |
| <p>■ 2015년</p> | 15-01 |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정지현·김부용   |
|                | 15-02 |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임수호·최유정·홍석기  |
|                | 15-03 |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U.S. Monetary Policy on China's Capital Market Stability and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Gang Jianhua, Qian Zongxin, Zhang Chao and Zhang Jiarui |
| <p>■ 2014년</p> | 14-01 |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 오종혁·박현정   |

- 14-02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 강준구
- 14-03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 / 이호영·엄준현
- 14-04 중국의 지식산업화 분석과 시사점: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을 중심으로 / 박현정·이효진
- 14-05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나승권·홍이경
- 14-06 북극이사회의 정책동향과 시사점 / 문진영·김윤옥·서현교
- 14-07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요인과 시사점 / 고희채·최호락

---

### 이정균(李政均)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원 경제학 석사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krhee@kiep.go.kr)

#### 저서 및 논문

『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경제무역협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2004)  
『중국 동북3성 투자가이드』(2015) 외

---

### 김준영(金俊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칭화대(清华大学) 국제관계학과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現, E-Mail: junyoung@kiep.go.kr)

#### 저서 및 논문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공저, 2015)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공저, 2015) 외

---

### 임소정(任昭貞)

이화여자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 석사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現, E-mail: sjim@kiep.go.kr)

#### 저서 및 논문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5)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공저, 2015) 외

---

### 안국산(安國山)

중국 연변대학교 소수민족경제전공 경제학 석사  
한국 국립창원대학교 마케팅전공 경영학 박사  
한국 국립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객원교수  
현재 중국 연변대학교 경상대학 마케팅학과 학과장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 소장  
(現, E-Mail: ags418@ybu.edu.cn)

---

### 미무라 미쓰히로(三村光弘)

일본 오사카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법학박사 학위 취득  
국립 니이가타대학 강사  
현립 니이가타여자단기대학 강사  
중국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겸직교수  
Montere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객원연구원  
ERINA 조사연수부장 겸 주임연구원  
(現, E-Mail: mimura@erina.or.jp)

---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포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Analyzing the Changes in Trading Practices in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due to North Korea Sanctions

RHEE Jung-kyun, KIM Junyoung, IM So Jeong, AN Guo-shan, MIMURA Mitsuhiro

북한의 핵실험과 UNSC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북·중 간 무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은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북무역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라오닝성, 지린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UN 안보리 (UNSC)의 대북제재(2006~16년(2270호)와 한·미·일의 양자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거래 관행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북·중 간 전체 무역과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구조, 특징을 동시에 고려해볼 경우, 기존의 대북제재가 북·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대북제재로 인해 북·중 간 거래관행의 지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북·중 무역의 현황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대북제재로 인한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간 경제협력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과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9 788932 224213

ISBN 978-89-322-2428-2

978-89-322-2064-2 (세트)

정가 7,000원